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140-100001-10



2025년 연구보고서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문항 개발 연구

2026. 1.



<https://mods.go.kr/dsri>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1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문항 개발 연구

우한수·남상민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AI 기반의 공공 AX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2025년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기술을 국가통계에 접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및 자동분류,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우캐스트 지표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는 통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론 연구와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확률표본과 자원자표본을 통합한 추정 방안 연구는 응답자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비확률표본의 병행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수집 개선 연구와 데이터 통합방법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돌봄 분야 국가통계 활용 방안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 연구는 데이터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동통계 심층 분석 연구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중·고령기 비교 연구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표 작성 연구와 퇴직연금 적립금 배분 방법 연구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사람을 잇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제2장 문헌 고찰	6
1. 사회적 고립:은둔 개념	6
2. 국내외 사회적 고립:은둔 측정 사례	21
제3장 전문가 자문 및 유관 기관 업무 협의 결과	66
1. 전문가 자문 결과	66
2. 유관 기관 업무 협의 결과	76
제4장 고립:은둔 관련 사회조사 문항 개발	77
1. 항목 개발의 기준과 원칙	77
2. 세부 항목 개발	7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5

요 약

최근 1인 가구 증가, 비정규 고용 확대, 고령화, 비대면 환경 확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 은둔과 사회적 단절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국가 단위에서 측정하고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생애주기적·전국적 단위의 실태조사나 공식 통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문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실태를 정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 관련 정책 및 조사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유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고립·은둔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 항목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은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개인의 외로움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외부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 체계와 교류 빈도를 통해, 내부적 고립은 외로움 문항을 통해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은둔은 행동적·공간적 측면과 기간 요인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외출 빈도, 외출하지 않은 사유, 외출하지 않은 기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OECD의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지표체계 및 일본의 히키코모리 조사체계를 참고하여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항들은 2025년 사회조사에 신규로 포함될 예정이며, 향후 이를 통해 고립·은둔자의 규모, 원인, 지속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계 기반은 청년정책, 고독사 예방,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국가 통계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립·은둔 측정의 고도화와 사회적 연결성 회복을 위한 정책 설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외로움, 고립, 은둔, OECD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인 가구 증가, 비정규 고용 확대, 고령화 가속화, 비대면 환경 확산 등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인간관계의 기능적 단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은둔(일본의 hikikomori¹⁾) 문제로 표출되고 있음
 -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은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따른 사회 전체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개인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

-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정책적 인식 확산
 - 고립·은둔의 현상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고립·은둔 청년이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1인당 15억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고립은 생애 전반기 동안의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발생하여 그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Caspi, Harrington, Milne & Poulton, 2006)

-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들 또한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추진 중

1) 히키코모리(Hikikomori)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철회 상태를 의미함. 영어권에서는 '극심한 사회적 위축/철회(extreme social withdrawal, ESW)' 또는 일본어 용어 그대로 'hikikomori'로 표현되기도 함. 이 현상은 특히 1990년대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기 이후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으며, 당초에는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것으로 여겨졌음. 당시 히키코모리 상태에 들어간 이들이 중장년이 되면서,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형태의 '8050 문제'와 같은 고령화 관련 문제도 보고되고 있음.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보고되는 추세임(유민상, 2025).

- OECD(2024)는 최근 사회적 연결성 측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시함
 - * OECD WISE 센터는 2024년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 A scoping review (OECD 국가에서의 사회적 연결성 측정 – 주제 범위 고찰)"을 출간하여 측정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함
- 영국은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신설하고 사회적 고립의 국가 지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히키코모리(Hikikomori)'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 은둔 청년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추계하고 있음

□ 다만, 사회 전반에서 고립·은둔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생애주기 전반의 시각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측정하거나 공식 통계로 반영하고 있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 (비확률표본조사) 기존 고립·은둔을 추정하기 위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은 대상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측정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모집된 비확률표본조사로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 (대상의 제한성) 노인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는 법률에 기반한 국가승인통계이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 생애주기적·통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제한적
- (활용 항목의 제한)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사회적 연결망 관련 항목을 조사하나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외로움 항목, 외출 빈도, 외출하지 않는 사유와 기간 등 관련 항목 부재에 따라 활용에 제한적

□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2023.8)에서 고립·은둔 규모, 비중,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

사회통합위원회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2023.8) 중 실태조사 내용
○ (전국민 실태조사) 모든 연령층 및 전국 단위 규모의 고립·은둔자 실태 파악 - 정부*에서 20세 이상 전 국민 대상 고립·은둔 관련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규모(비중),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을 조사 * 통계청 ²⁾ 에서 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존 실시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실태 파악

□ 이에 따라 청년정책, 고독사 등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관련

2) 현 국가데이터처

정책적인 수요를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외로움 문항과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등 고립·은둔 관련한 문항을 제안하고, 문항 설계 과정에 참여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 담당)는 사회통합위원회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2025년 사회조사에 고립·은둔 측정 항목을 신규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연구를 국가데이터연구원에 수요 과제로 제출함('24.12)
- 이에 본 연구는 '25년 단기과제(연구기간*: '25. 1월~4월)로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문항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행됨
 - 본 연구는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적 수요로 실시된 과제로 특히, 보건복지부와 사회통계기획과가 제안한 고립·은둔 관련 외로움 문항과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등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 이에 따라 국내외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담당 부서인 사회통계기획과 및 유관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고립·은둔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2025년 사회조사 신규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설계에 유용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다만, '24년 12월 담당 부서 업무 협의 및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2.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해 2025년 사회조사에 관련 측정 문항을 신설하는 것임. 고립·은둔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문항 개발에 적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연구 내용임
 - 이를 통해 고립·은둔의 측정과 실태 파악 관련 「사회조사」의 시의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 과제는 2025년 사회조사 문항 개발 과제로 진행됨에 따라 올해 사회조사 실시('25. 5월) 전인 2025년 1월~4월까지 4개월간의 수요 과제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본 연구의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고립·은둔 개념을 정리하고 측정 개념틀을 마련하는 것임.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자들마다의 다양한 정의가 통

계조사 및 법령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고립·은둔 측정을 위한 개념틀 정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정책 수요 관점, 국내외 고립·은둔 관련 조사 항목과 사례 등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실태조사, 통계 등을 검토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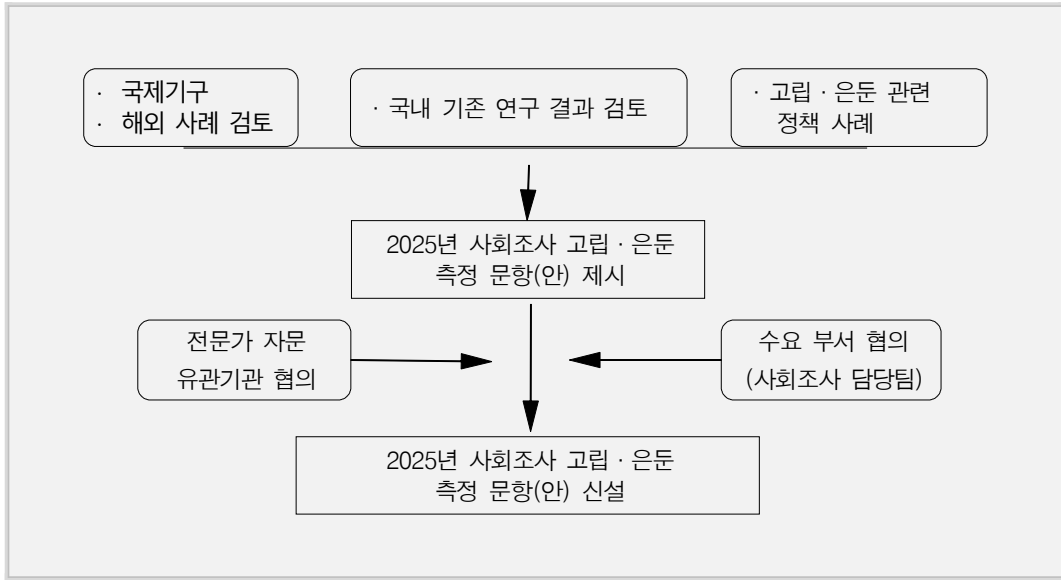
- 둘째, 사회적 고립·은둔 측정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것임. 이는 고립·은둔 개념과 측정의 타당성, 측정 결과의 시계열 안정성, 국제 비교 가능성 등과 관련됨. 고립·은둔 측정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임
- 셋째, 2025년 사회조사의 틀 안에서 사회적 고립·은둔 측정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는 것임. 고립·은둔의 측정을 위한 항목 신설도 중요하지만,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응답의 안정성 및 결과의 설명 가능성 등 사회조사의 안정성과 전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유지하는 것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고립·은둔 측정을 위한 항목 개발을 도출할 것임
- 넷째, 사회조사에서의 고립·은둔 항목 신설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아울러 살펴보고 향후 고립·은둔 측정 고도화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고립·은둔 측정을 위한 문항 개발을 위해 국내외 고립·은둔 관련 문헌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 수요 부서 및 관계 부처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고립·은둔 관련 사회조사 문항 개발을 확정함

□ 본 연구 방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개념 정리와 측정 틀을 도출함. 이를 위해 국내외의 고립·은둔 관련 이론 및 지표, 정책 보고서, 통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둘째, 기존 고립·은둔 관련 조사 항목을 분석하는 것임. 주요 관련 조사인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고립 관련 문항 측정 틀, 결과, 의의 및 한계를 검토함
- 셋째,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문항 제안 및 정책 연계 방안 도출함. 이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과 수요 부서,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 진행



<그림 1-1> 연구 추진 방법

제 2 장

문헌 고찰

1. 사회적 고립·은둔 개념

1.1 사회적 고립의 개념

가. 사회적 고립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 연구 흐름

-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정의 마련을 위해 외로움 개념과 비교, 자발성 여부, 범위, 대상과 주체 등 주요 핵심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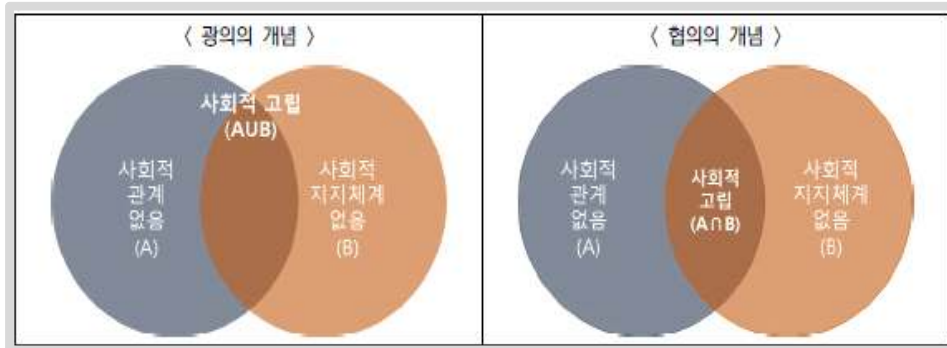
1) 유사 개념: 외로움 개념

- 외로움(loneliness)은 명확히 정립된 단일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춤
 - Perlman과 Peplau(1981)는 외로움을 사회적 관계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쾌한 경험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기대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 관계의 차이를 인지할 때 외로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즉, 실제 사회적 관계망이 넓더라도 자신의 기대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임
 - de Jong Gierveld(1978)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관계의 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외로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은 각 이론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음(J. T. Cacioppo & Cacioppo, 2018). 외로움의 주요 이론은 사회적 욕구 이론, 인지적 접근, 신경생물학적 및 진화론적 관점 등이 있음
 - 사회적 욕구 이론(social needs theory): 대상관계이론과 Bowlby(1973)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 애착 경험의 결핍이 이후 외로움과 관련된다고 설명(Hojat, 1998; Weiss, 1973)

-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 인지적 불일치 이론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가진 대인관계와 자신이 원하는 대인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함으로써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설명(Peplau & Perlman, 1982)
 - 신경생물학적 및 진화론적 관점: Cacioppo, Hawkley 등(2006)은 외로움을 소속감 욕구의 결여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부호화된 반응이라고 개념화
- 한편,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개념과 유사함(황수진 등, 2021). 실제로 두 개념은 함께 다뤄지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마다 정의가 다름

2) 유사 개념과의 차별성: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관계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구분하는 연구
- 사회적 고립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Townsent(1957, 1974)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을 개념화하면서, 동료로부터 따돌림, 관심의 부족 또는 상실에 의한 반갑지 않은 감정(unwelcome feelings)인 고독(loneliness)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즉,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인 개념이며, “고독(외로움)”은 주관적인 개념을 의미함(김춘남, 2018)
 - 연구에 따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외로움’은 정서적 측면 또는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의 접촉 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여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
 - 김성아 외(2023)는 사회적 고립을 행복한 양질의 삶을 위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등의 다차원적 자본 중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로 설명하며, 사회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교류의 결핍을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
 - 사회적 지지 체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존재
 - 사회적 교류: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 최영준 외(2023)는 객관적 측정 항목인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A)와 사회적 지지 체계(B)의 조합을 활용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광의의 개념(A∪B)과 협의의 개념(A∩B)으로 제시하였음



출처: 최영준 외(2023), 김성아(2023)

<그림 2-1> 사회적 고립 개념

- 이러한 주장들의 핵심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롭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임(de Jong Gierveld & Havens, 2004)
- 또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고립 대상 측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 체계, 사회적 교류 정도 등 보다 명확한 객관적 지표의 활용이 더 적합하다는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임

<표 2-1> 외로움과 구분된 사회적 고립 정의

구분	(사회적) 고립의 개념
Wilson (1987)	“주류를 나타내는 개인 혹은 집단(institutions)과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혹은 접촉이 부족한 상황”(p. 60)
박영환과 강희선 (2008)	Tomaka 등(2006)이 규정한 ‘타인과의 접촉 횟수 감소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정의
박미진 (2010)	물리적 고립(Waite & Hughes, 1999), 비공식 체계와의 교류 고립(Cornwell & Waite, 2009; Hawthorne, 2008), 사회참여의 고립(Benjamins, 2004)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정의
권혁남 (2013)	Townsend(1957)가 규정한 ‘가족 친족관계나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작위적인 척도를 설정하고 어느 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
황수진 외 (202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모두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시작하지만 ...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 자체를 의미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함”(p. 292)
김성아 (2022)	외부적으로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 외출 정도의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고립감 빈도 등에서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

* 출처: 김성아(2022) 재구성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통합하는 연구

- Vincenzi와 Grabosky(1987)는 사회적 고립감을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생긴 부정적 정서인 우울, 불안, 자아개념의 저하 등을 수반하는 주관적인 경험인 외로움과 현재 행동 상태인 고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함
 -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분리의 고통인 정서적 고립과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고, 이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후속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김춘남(2018)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중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정의
- 유민상 외(2023)는 사회적 고립을 외부와의 네트워크와 교류가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적 자원(지지 체계)이 없는 상태를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으로,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혹은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상태를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설명함

<표 2-2> 사회적 고립의 개념 구성

	사회적 고립	
	외부적 고립(객관적)	내부적 고립(주관적)
구성요소	·연결망 결핍(social network) ·연락 결핍(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 결핍(social support)	·외로움

* 출처: 유민상(2023)

- 이러한 주장들에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와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고립감까지 포괄함
 - 즉, 사회적 고립을 ‘사회 내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중국에는 그러한 관계망이 부재하게 되어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함
 -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는 없으나, 객관적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많이 산출되고 있음

<표 2-3> 외로움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정의

구분	(사회적) 고립의 개념
Delisle(1988)	사회적 접촉의 양적·질적 부재
Hawthorne(2006)	교유 관계없는 생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접촉,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 타인과의 거리감, 아웃사이더이며 고립됨. 외로움을 느낌
Fine과 Spencer (2009)	“사회적 고립은 두 가지 요소를 혼합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험. 여기서 사회적 측면은 종종 양적으로 측정되는 반면, 감정적인 측면은 질적으로 측정됨”(p. 9)
Biordi와 Nicholson(2013)	“네트워크 혹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개인이 겪는 물질적 혹은 정서적, 혹은 두 가지 모두의 격리(distancing)”
Zavaleta, Samuel과 Mills(2017)	“타인과의 사회관계의 부적절한 질과 양.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상호 관계가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개인, 집단, 지역 혹은 더 넓은 사회적 환경)를 포괄함”(p. 5)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2010)	“공동체에서 주요한 관계의 상호관계망 속으로의 개인 참여가 결여된 상태. 그러한 관계망은 특정한 물리적·사회적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포괄적인 경제적·정치적 권력의 영향을 받음”(p. 13)
김춘남 외(2018)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중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p. 4)
유민상과 신동훈 (2021)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 고립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됨(p. 21)

* 출처: 김성아(2022) 재구성

3) 사회적 고립의 범위

- 사회적 고립의 범위는 특히, 정책적 시각에서 중요한 이슈임. 이는 사회적 고립 측정 결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문제로 사회적 고립의 자발성, 대상, 주체 등과 연결됨
- 자발성 여부 및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배제
 - 사회적 고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 교류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것부터 타인에 의해 강요된 또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립에 이른 것까지 포괄함(Biordi & Nicholson, 2013)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회적 고립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고립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와도 연결됨
-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한 사회에 거주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원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음(강신욱과 김안나, 2005)
 -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사회 내로 포섭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임
 - 이를 사회적 고립과 연결시켜 보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은 참여를 원하지만 비자발적 원인 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임(Barry, 1998)
 - 즉, 이처럼 비자발적인 사회적 고립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예컨대 사회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강신욱과 김안나, 2005)

□ ‘사회적’이라는 개념 정의와 대상 및 주체의 문제

-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적(social)’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고립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됨
 - Victor(2000)는 친구, 가족 등 협의적이거나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고립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에 사회적 환경까지 통합하여 확장시켜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에 접촉의 기간, 형태, 횟수로 측정되는 개념을 제시함
- (대상) 사람에서 장소로 확장
 -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에서는 주로 사람(person)으로부터의 고립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와 연계시켜 장소(place)로부터의 고립 문제로 확장되어 연구하고 있음(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2015)
- (주체)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적 접근
 -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에 있어 초기에는 고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그러나 사회적 고립의 영향은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생애에

결쳐 누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Clarke & McDougall, 2014;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2015)

나. 사회적 고립의 정의

1) 사회적 고립의 범위

-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고립 범위
 - 본 연구는 정책적 개입을 염두에 둔 사회적 고립 개념의 고찰을 기반으로 함. 앞서 살펴본 사회적 고립 개념 안에 외로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발적 외로움을 선택한 집단은 사회적 고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정책적인 영역에서의 고립·은둔의 정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정책적 실행을 통해 향후 법정정책적 정의, 측정에서의 조작적 정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세부 규정 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음(유민상, 2025)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의 범위를 규정하면 아래와 같음
 - 사회적 고립 범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단절되고, 중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집단임

<표 2-4> 고립의 범위

	자발성 여부	심리적 어려움	
		외로움 경험	외로움 비경험
고립	자발적 고립		
	비자발적 고립	사회적 고립	

* 출처: 김춘남(2018) 재작성

2) 사회적 고립의 정의 및 구성: 사회조사 항목 기반

- (정의) 사회적 고립은 비자발적 고립과 외로움이 결합된 개념임. 비자발적 고립은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의미하는 외부적 고립을, 외로움은 주관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느끼는 감정인 내부적 고립을 의미함(유민상, 2023).
 - 사회적 고립 = 외부적 고립 + 내부적 고립

□ 사회조사 항목을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 하위 항목 구성

○ (외부적 고립)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항목을 통해서 측정 가능함.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 체계 및 사회적 교류를 의미하는 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사회적 지지 체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존재

* 사회적 교류: 동거하는 가족이나 단순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개념	사회조사 항목('23년 기준)
<p>사회적 지지 체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관계망</p> <p>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p> <p>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p> <p>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p> <p>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p> </div>
<p>사회적 교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23-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p> <p>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명 ② 없다</p> <p>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 있다()명 ② 없다</p> </div>

* 김성아(2023)

- 외부적 고립과 관련하여서는 세부 항목 구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 관련 외부적 고립은 사회적 연계망 항목을 활용함.* 이에 기존 조사 결과와의 안정성 및 사회조사 항목 변동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외부적 고립 항목은 기존 사회적 연계망 항목 이용

* 김춘남(2018), 보사연(2023), 최영준(2023) 등

- (내부적 고립) 현재 사회조사에서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이 부존재함에 따라 신설 필요
 - 외로움(loneliness):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유민상, 2025)
 - 내부적 고립을 구성하는 항목은 외로움 외에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등을 고려하는 개념체계*도 있으나, 개인적 인관관계 만족도는 사회조사 항목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내부적 고립은 외로움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 OECD(2024)
 - 또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요로 외로움 항목의 추가 요구

- (소결) 사회적 고립은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성되며 외부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교류 항목으로, 내부적 고립은 외로움 항목으로 측정



다.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 OECD BLI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성은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로, 타인과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지지의 정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연결성이 부재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유민상(2025)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사회적 관계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였음
- 사회적 고립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objective) 상태와 주관적(subjective)

상태로 나눌 수 있음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란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객관적(물질적) 요소와 주관적(외로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 즉, 외부 네트워크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적 자원(지지 체계)이 없는 상태를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으로,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혹은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상태를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볼 수 있음
- OECD How's Life(OECD, 2024), 유럽 주요국 및 Zavaleta(2017) 등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함
- OECD의 사회적 연결성 지표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 관계 만족도 뿐만 아니라 외로움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됨

<표 2-5> 'OECD How's Life' 웰빙 데이터베이스 사회적 연결성 지표

	지표명	정의	비고
사회적 연결성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비율(%)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s)	주요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한 시간, 주당 시간	시간
	개인 관계 만족도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	만족도 (점)
	외로움(loneliness)	지난 4주 동안 대부분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	비율(%)

*출처: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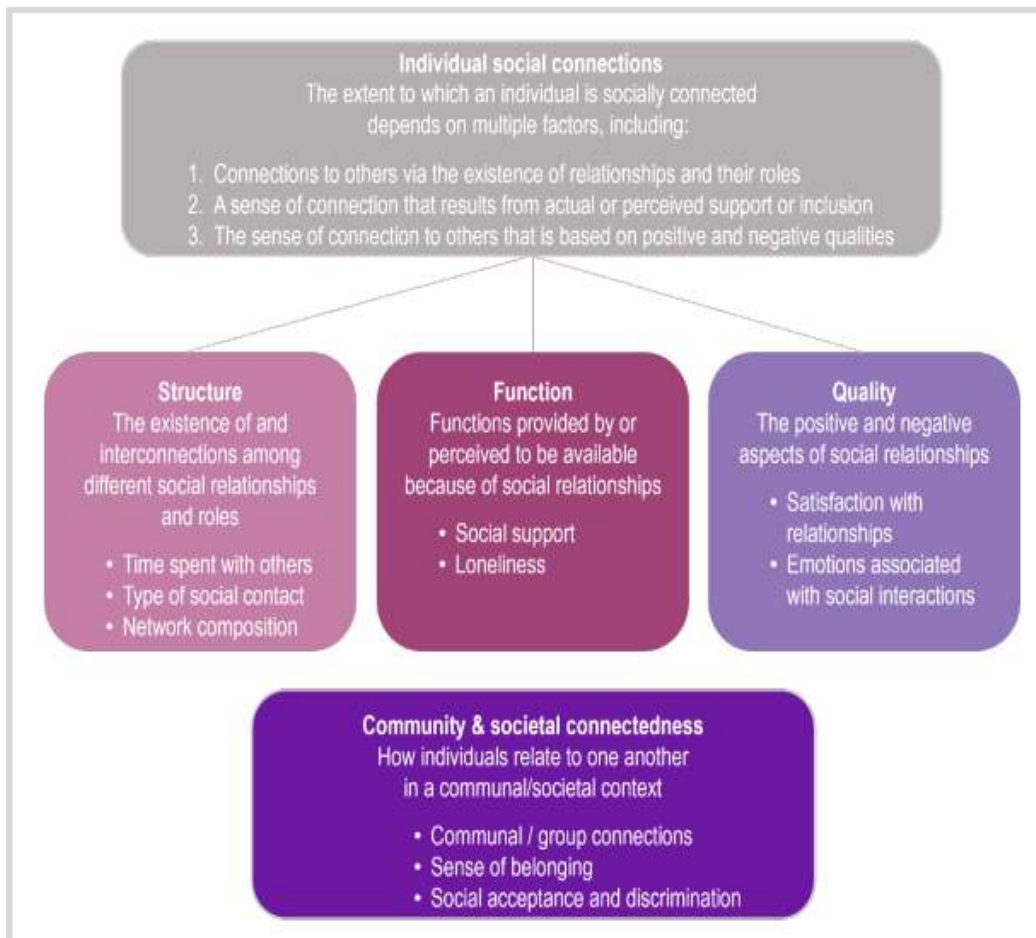
□ (OECD*)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질(quality)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와 사회적 연계로 이어지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a scoping review(OECD, 2024)

-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에서 개인적 연결은 구조, 기능, 질로 구분되어 결합되고 이는 커뮤니티, 사회적 연결로 확대됨
- 구조는 타인과 보내는 시간, 연락 유형, 네트워크 구성으로 기능은 사회적 지지, 외로움으로 질은 관계의 만족도로 구성

<표 2-6> OECD의 사회적 연결성 측정 틀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질(QUALITY)
네트워크 다양성 (Network composition)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개인 관계 만족도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사회적 접촉 유형 (Type of social contact)	외로움 (loneliness)	상호 작용 감정 (Emotions associated with social interaction)
타인과 보내는 시간 (Time spent with others)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16 figure 2.2.

<그림 2-2> OECD의 사회적 연결성 측정 틀

1.2 은둔의 개념

가. 은둔 개념에 대한 국내외 연구 흐름

- 은둔은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Hikikomori)로부터 출발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소개됨(여인중, 2005; 황순길 외, 2005).
-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 syndrome)라는 용어는 1998년 Tamaki Saito의 책 “사회적 히키코모리: 끝나지 않는 사춘기(社會的ひきこもり: 終わらない思春期)”에서 처음 사용됨. 영문 문헌에서 심각한 형태의 사회적 철회(acute social withdrawal)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음(Tamaki & Angles, 2013; Watts, 2002; Yong & Kaneko, 2016).
- Teo(2010)는 사회적 철회를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패턴으로 정의함

- 일본 내각부는 히키코모리를 “취업이나 가사를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는 ① 사회적 역할이 부재하고, ②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회피하며, ③ 장기간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등의 특성을 함께 보이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임
- 은둔 개념은 사회적 고립 개념에 비해 개인의 의도(회피), 행동(외출), 공간(방이나 집), 기간(6개월) 개념을 추가한 것에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 참여 부족이나 외로움 경험 등은 고려하지 않는 차이가 있음(유민상, 2025)

- 일본 후생노동성(2010)의 히키코모리 평가 및 지원 가이드라인(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써 사회적 참여(의무 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에 걸쳐 대체로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형태의 외출을 하고 있어도 됨)를 가리키는 현상적 개념”으로 설명

-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 중인 ‘어린이·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히키코모리를 준히키코로미와 좁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로 구분함
- 구분 기준은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좁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로,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외출을 하는 경우는 준 히키코모리로 분류

<표 2-7> ‘어린이·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보고서’ 히키코모리 유형 및 비율

구분	연령별 구분	해당자 수	유효 회수 응답 중 차지하는 비율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일에는 외출한다	15세~39세 대상	67명	0.95%	준 히키 코모리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64명 (30명)	1.23% (0.70%)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에 나간다	15세~39세 대상	52명	0.74%	광의의 히키 코모리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81명 (50명)	1.55% (1.1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5세~39세 대상	21명	0.30%		좁은 의미의 히키 코모리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4명 (3명)	0.08% (0.07%)		
자기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15세~39세 대상	4명	0.06%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6명 (3명)	0.12% (0.07%)		

* 일본 내각부 “2022년 어린이·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보고서(子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에서의 히키코모리 유형 및 비율

*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index.html>,
 유민상(2025)에서 재인용

히키코모리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는 외출 빈도와 장소의 개념임. 즉, ‘집’이라는 공간적 측면과 ‘나가지 않는다’는 행동적 측면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유민상, 2022)

국내외 연구에서 은둔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 정의 또한 외출 빈도와 장소(집)라는 핵심 요인을 통해 정의함

나. 은둔 개념에 대한 정의와 구성 항목

은둔의 개념은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로 주로 연구된 개념임. 국내 대부분의 연구 또한 일본 내각부 등의 정의를 따라 설계된 조사표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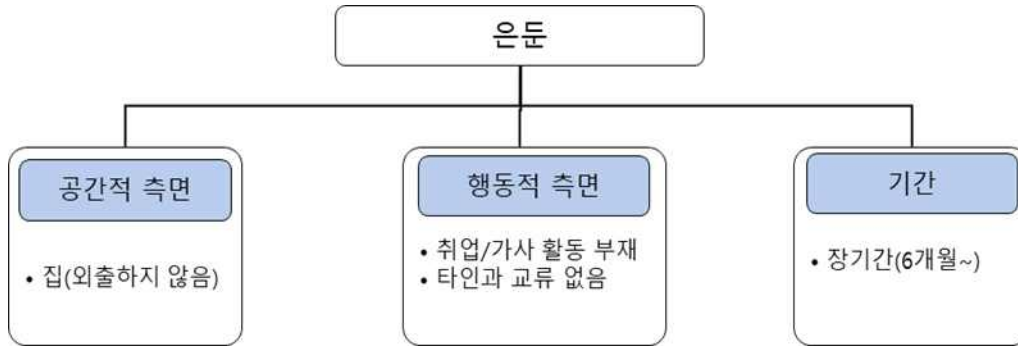
- 일본 내각부의 히키코모리 정의: “취업이나 가사를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집에 머무르는 사람”

<표 2-8> 은둔 개념

구분	은둔 개념
사이토 타마키 (齋藤環, 2002/2012); 김혜원 외(2021, p. 23에서 재인용)	“(자택에 틀어박혀) ① 사회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② 정신장애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토 가즈히코 (齊藤万比古) 외(2010)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적 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제 등)를 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대체로 가정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형태의 외출을 하고 있어도 된다)를 가리키는 현상”(p. 6)
여인중 (2005; 김혜원 외, 2021, p. 24에서 재인용)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안하는 사람”
황순길 외(2005)	“①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고, ② 진학·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③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④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⑤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p. 14)
김춘남 외(2018)	“사회에서 물러나 집이나 자신만의 장소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의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것”(p. 2)
김성아(2022)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되어 있으며,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상황

* 출처: 김성아(2022) 재구성

- 은둔은 공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그리고 기간 특징을 통해 개념화할 수 있음
 - (행동적 측면) 취업이나 가사를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음
 - (공간적 측면) 집이라는 특정 장소에 머물
 - (기간) 장기간 지속됨



-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의 은둔의 범위
 - 정책적으로 은둔 대상에서 장애,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한 은둔은 제외해야 함
 - (사회조사 항목) 이를 위해서는 외출 횟수, 이유, 기간 등의 항목이 조사되어야 함.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신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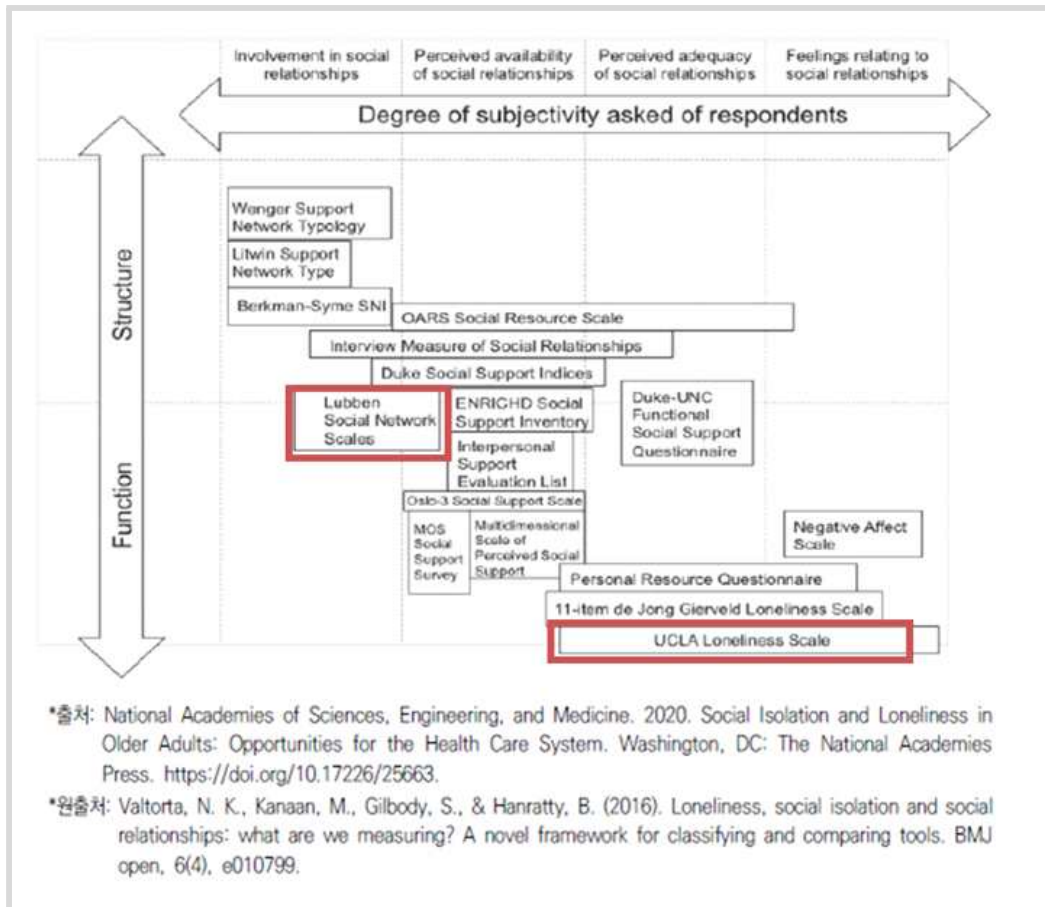
- 은둔 측정과 사회조사 항목
 -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은둔과 관련해 사회조사 항목에 외출 횟수, 이유, 기간을 추가하여 정책 수요로 제출

특징	사회조사 항목 추가
공간적 측면	외출 횟수 이유 기간
행동적 측면	
기간	

2. 국내외 사회적 고립·은둔 측정 사례

2.1 사회적 고립·은둔의 측정 도구

- 사회적 고립의 측정은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Valtorta(2016)는 측정 방식에서 응답자의 주관성 정도(degree of subjectivity asked of respondents)와 네트워크의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으로 구분하여 응답 척도들을 나누었음(유민상, 2025)
 - 사회적 고립 관련 대표적인 척도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6와 UCLA Loneliness Scale임



<그림 2-3> 사회적 고립 측정을 위한 다항목 척도 비교

가. 외부적 고립의 측정 도구 예시

- 외부적인 사회적 고립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측면의 고립을 의미함. 즉,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고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있는지,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자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Lubben의 사회적 네트워크 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
 - 사회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지 자원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
 - 12개 문항과 6개 문항 버전 등이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연락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각각 몇 명이나 있는지를 측정함
 - 사회적 네트워크의 친밀도, 접촉 빈도, 크기 등을 나타내며, 주로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고립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Valtorta, Kanaan, Gilbody & Hanratty, 2016).

Lubben Social Network Scale-6(LSNS-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척은 몇 명입니까?○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척은 몇 명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느끼는 친척은 몇 명입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느끼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p>* 각 문항에 대해 0(없음)부터 5(9명 이상)까지 6점 척도로 응답</p>

* 출처: 유민상(2025)

- Duke의 사회적 지지 지수(Duke Social Support Index, DSSI)
 - DSSI는 외부적 차원과 내부적 차원의 고립을 함께 측정하는 특징이 있으며 35개 문항, 23개 문항, 10개 문항 등 다양한 버전의 척도로 활용(Wardian, Robbins, Wolferteig, Johnson & Dustman, 2013)

Duke Social Support Index, DSSI

Duke Social Support Index(DSSI)의 예					
원 설문 번호	문항 수 버전				척도에서의 질문 문항
	35	23	11	10	
사회적 네트워크 규모(Social Network Size)					
1	○				1시간 이내 거리에 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수
2	○				1시간 이내 거리에 사는 형제자매의 수
3	○				1시간 이내 거리에 사는 자녀의 수
8	○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의 양
34	○				가구 구성원 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4	○	○	○	7	1시간 이내 거리에 살며 의지하거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
5	○	○	○	8	지난주에 함께 시간을 보낸,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횟수
6	○	○	○	9	지난주에 친구나 친척과 전화 통화를 한 횟수
7	○	○	○	10	지난주에 소속된 클럽, 종교 단체, 기타 모임(직장 제외)에 참석한 횟수
사회적 만족도(Social Satisfaction)					
10	○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11	○	○	○	2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느끼십니까?
13	○	○	○	3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14	○	○	○	5	가족과 친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5	○	○	○	4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6	○	○	○	1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명확한 역할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17	○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18	○	○	○	6	가장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9	○	○	○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3	○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음 중 하나라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로 응답)					
20	○	○			아플 때 도와줌
21	○	○			쇼핑이나 심부름을 대신해줌
22	○	○			선물을 줌
23	○	○			금전적으로 도움을 줌
24	○	○			집안의 물건을 고쳐줌
25	○	○			집안일을 대신해줌 또는 가사 일을 도와줌
26	○	○			사업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 조언해줌
27	○	○			동반자로서 함께 시간을 보냄
28	○	○			당신의 고민을 들어줌
29	○	○			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언해줌
30	○	○			교통편을 제공해줌
31	○	○			식사를 준비하거나 제공해줌
32	○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줌
기타 항목(Other items)					
9	○				친구 및 친척을 만나는 빈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2	○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속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35	○				현재 결혼했거나 결혼한 것처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고: 이 설문은 본 연구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번역한 버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함.

*출처: Wardian, J., Robbins, D., Wolfersteig, W., Johnson, T., & Dustman, P. (2013). Validation of the DSSI-10 to measure social support in a general populatio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3(1), 100-106.

* 출처: 유민상(2025)

나. 내부적 고립(외로움) 측정 도구 예시

□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됨. 외로움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단일 차원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으로 구분

1) 단일 차원적 외로움 측정

□ (단일 차원적 접근) 외로움을 상황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그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개념화함. 즉,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로움을 측정함

- Russell 등(1978)이 개발한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 (UCLA 외로움 척도)은 단일 차원적 접근을 바탕으로, 외로움을 원하는 수준과 실제 사회적 관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일차원적 감정 반응이라고 정의
 - 이 척도는 총 20문항(정문항)으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됨
 - 다만, UCLA 외로움 척도는 외로움과 관련된 공허함이나 고통 등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서영석 등, 2021). 또한, 다양한 관계나 상황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

- UCLA 외로움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규모 조사에서는 3~4개 문항이 선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외로움부를 설치하고 국가 수준의 외로움 대책을 마련한 영국에서도 국가 수준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UCLA 외로움 척도를 사용(유민상, 2025)

UCLA Loneliness Scale의 예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 Social network module (Global) 사례
How often in the past 4 weeks have you felt that... <input type="radio"/> you lack companionship; <input type="radio"/> you are isolated from others; <input type="radio"/> you are left out? * 각 문항에 대해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very often으로 응답

* 출처: 유민상(2025)

- 유럽소득생활조건통계(EU), 인간관계기본조사(일본) 등에서도 폭넓게 사용

분류	예시 질문	응답 옵션 예시	조사명(국가)
외로움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항상, 대부분, 가끔, 조금, 전혀 없음	유럽소득생활조건통계(EU)
	UCLA 3문항 외로움 척도: 동반자가 부족함, 소외감, 고립감은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거의 없음/전혀 없음, 가끔, 자주	인간관계기본조사(일본)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20. Table 2.2.

- 국내 2023~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도 UCLA의 문항 일부를 포함 측정

UCLA Loneliness Scale의 예 202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승인통계)의 예	
다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응답	

* 출처: 유민상(2025)

2) 다차원적 외로움 측정

- 외로움의 다차원적 접근은 상황이나 원인에 따라 외로움의 특성이 다양하다고 설명. Weiss(1973)는 외로움을 사회적 외로움과 정서적 외로움,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즉, 친구나 동료, 이웃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적 외로움과 정서적 애착 대상이나 친밀한 관계의 부재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적 외로움이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
-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바탕으로 사회적·정서적 외로움 척도(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DJGLS) 등을 개발
-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 de Jong Gierveld(1998)는 대인관계의 애정과 친밀감 측면에서 원하는 것과 현재 갖고 있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하며, 불일치가 클수록 외로움이 크다고 설명
- UCLA 외로움 척도에 비해 DJGLS는 다양한 관계나 상황에서의 외로움을 측정함으로써 중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의 예 Social Cohesion Survey (NLD) 사례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들이 귀하의 최근 상태에 얼마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radio"/> 나는 일반적인 공허감을 느낀다 <input type="radio"/>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input type="radio"/>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input type="radio"/>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리움이 느껴진다 <input type="radio"/> 가까운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 <input type="radio"/> 나는 자주 거절당한 기분이 든다 * 각 문항에 대해 Yes, Somewhat, No로 응답

3) 소결

- 외로움 측정과 관련하여 단일 차원의 측정과 다차원적인 측정으로 나눌 수 있음
 - 다차원적 외로움 측정 도구인 De Jong Gierveld는 단일 차원의 측정 도구인 UCLA Loneliness Scale에 비해 다양한 차원에서 외로움의 특징들을 조사할 수 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답변 소요 시간이 길고 유사한 문항이 다수 배치되는 대규모 조사에는 알맞지 않음. 대규모 조사에는 단일 차원 조사, 주제별 실태조사에는 다차원 조사가 적합할 것임

<표 2-9> UCLA Loneliness Scale과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비교

	차원	하위 요인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
UCLA Loneliness Scale	단일 차원	-	-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다차원	친구/사람	친한 친구/사람

2.2 국내 고립·은둔 측정

가. 사회조사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작된 종합 사회조사로 주관적 사회지표 작성을 위해 출발한 조사임
 - 「사회조사」는 국민의 주관적 평가나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이며,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를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종합 사회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약 18,000 가구 표본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공통 항목, 부문별 순환 항목, 일반 특성 항목으로 구성됨
 - 사회조사는 10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홀수년과 짝수년에 각각 5개 영역씩 순환 조사를 실시함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건강				○				○			○	○	○	○	○	○	○	○	○	○	○	○	○	○	○	○	○	○	○
2	교육과 훈련	○				○				○				○		○	○	○	○	○	○	○	○	○	○	○	○	○	○	○
3	범죄와 안전		○				○				○			○		○	○	○	○	○	○	○	○	○	○	○	○	○	○	○
4	가족			○				○				○	○	○	○	○	○	○	○	○	○	○	○	○	○	○	○	○	○	○
5	생활환경		○				○				○			○		○	○	○	○	○	○	○	○	○	○	○	○	○	○	○
6	복지			○				○			○	○		○		○	○	○	○	○	○	○	○	○	○	○	○	○	○	○
7	사회참여				○				○					○		○	○	○	○	○	○	○	○	○	○	○	○	○	○	○
8	여가	○				○				○			○		○	○	○	○	○	○	○	○	○	○	○	○	○	○	○	○
9	소득과 소비				○				○				○		○	○	○	○	○	○	○	○	○	○	○	○	○	○	○	○
10	노동			○				○					○		○	○	○	○	○	○	○	○	○	○	○	○	○	○	○	○

* 출처: 사회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2024)

<그림 2-4> 사회조사 지표체계

- 2025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영역 약 70개 항목 조사 예정
 - 영역별 조사 항목('23년 기준): 공통(3), 복지(18), 사회참여(15), 여가(8), 소득과 소비(6), 노동(12), 가구일반 사항(8)

<표 2-10> 2023년 사회조사 조사항목(가구주용)

부문		조사항목(74개)	비고
공통 부문		1. 주관적 만족도 2. 성취에 대한 만족도 3. 활동 제약 상태	
복지 (17개)	일반 (5개)	4. 생활 여건의 변화 5.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6. 늘려야 할 공공시설 7.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8. 선호하는 장례 방법	
	장애인 (4개)	9. 장애인과의 유대 관계 10.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11. 장애인 관련 시설 12. 장애인 복지 사업	
	노인 (8개)	13. 노후 준비 방법 14.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15.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6. 노후 생활 방법 17. 생활비 마련 방법 18. 자녀 유무 19. 자녀와의 동거 유무 20. 자녀와 동거 의향	60세 이상
사회참여 (15개)		21.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22. 신뢰 23. 사회적 관계망 24. 단체 참여 25. 기부 여부 26. 기부 내용 27. 기부문화 확산 28. 기부 의사 29. 유산 기부 의사 30. 자원봉사 활동 여부 31. 자원봉사 활동 내용 32.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33. 자원봉사 활동 의사 34. 계층 의식, 35. 계층 이동	
여가 부문 (8개)		36. 독서, 37.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38. 레저시설 이용 39. 국내 관광 여행 40. 해외 여행 경험 41. 여가 활용 42. 여가 활용 만족도 43.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소득과 소비 (6개)		44. 주관적 소득수준 45. 소득과 부채의 변화 46.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47. 건축 상황 지출 항목 변화 48. 소득 만족도, 49. 소비생활 만족도	
노동 (12개)		50. 직업 선택 요인 51.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52.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53. 여성 취업 장애 요인 54. 지난 1주간 경제활동, 55.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56. 고용의 안정성 57. 산업, 58. 직업, 59. 종사상의 지위 60. 근로 여건 만족도 61. 배우자의 지난 1주일간 경제 활동	만 34세 이하
개인 및 가구 일반 사항 (9개)		62. 성별 63. 생년월일 64. 가구주와의 관계 65. 교육 정도 66. 혼인 상태 67. 다문화 가족 68. 거처의 종류 69. 점유 형태 70. 가구소득	

* 출처: 사회조사 지침서(2023)

□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세부 항목 구성 및 조사 결과

○ 사회적 관계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23번)

-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지지 체계의 유무 파악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항목	고립 관련개념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 style="background-color: #4a86e8;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10px -10px 10px -10px;">사회적 관계망</p> <p>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p> <p>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p> <p>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p> <p>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p> </div>	<p>사회적 지지 체계</p>

<표 2-11> 사회적 관계망 -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¹⁾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2021년	72.8	2.3	50.1	2.2	79.6	2.9
2023년	74.0	2.3	51.0	2.2	79.8	2.9
도시(동부)	73.9	2.3	51.7	2.2	80.3	2.9
농어촌(읍면부)	74.5	2.2	47.8	2.2	77.5	2.7
남자	72.6	2.4	49.9	2.3	76.8	2.9
여자	75.4	2.2	52.0	2.1	82.7	2.9
13~18세	-	-	51.4	3.0	83.7	3.8
19~29세	79.6	2.8	60.1	2.7	85.6	3.7
30~39세	77.6	2.4	60.8	2.3	82.8	3.1
40~49세	75.1	2.3	58.3	2.0	82.0	2.8
50~59세	71.4	2.2	49.3	2.0	79.8	2.6
60세 이상	70.3	2.0	37.9	1.9	73.1	2.3

* 사회조사 보도자료(2023)

○ 사회적 관계망: 일 평균 교류(23번-1)

- 23-1번 항목: 평소 사람들과의 교류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유무 파악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항목	고립 관련개념
<p>23-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p> <p>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명 ② 없다</p> <p>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 있다()명 ② 없다</p>	<p>사회적 관계</p>

<표 2-12> 사회적 관계망 - 일 평균 교류

(단위: %, 명)

	가족 또는 친척(동거인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외(업무상 접촉 제외)	
	교류자 있음	사람 수	교류자 있음	사람 수
2021년	77.3	2.9	77.2	3.8
2023년	77.1	2.9	77.2	3.7
도 시(동 부)	76.8	3.0	77.6	3.8
농어촌(읍면부)	78.3	2.8	75.1	3.5
남자	74.2	3.1	75.7	4.0
여자	79.9	2.8	78.6	3.5
13~19세	69.4	3.1	85.3	5.3
20~29세	75.2	3.0	86.6	4.4
30~39세	78.7	2.9	80.6	3.8
40~49세	79.3	2.9	77.7	3.4
50~59세	79.8	3.1	77.5	3.5
60세 이상	76.0	2.8	68.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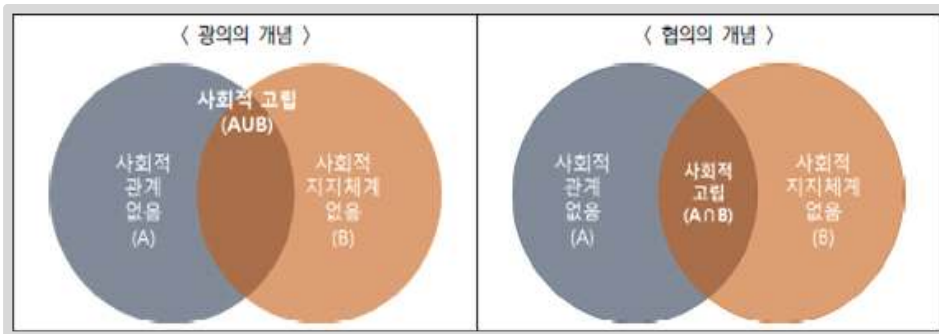
* 사회조사 보도자료(2023)

□ 사회적 고립 측정의 이론적 기반과 측정 결과

○ 사회적 고립 측정의 이론적 기반

- 보사연 등 기존 연구들은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중 사회적 관계망 항목 응답 결과를 통해 고립 인구 추정

- 이는 사회조사에 주관적 고립에 해당하는 외로움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물질적)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체계(23.항목)와 사회적 관계(23-1.항목)를 통해 고립을 측정하는 이론에 기반함
- 최영준 외(2023)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A)와 사회적 지지 체계(B)의 조합을 활용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광의의 개념(A∪B)과 협의의 개념(A∩B)으로 제시하였음



출처: 최영준 외(2023), 김성아(2023)

<그림 2-5> 사회적 고립 개념

- (측정 결과) 보사연에서는 현재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항목을 통해 고립 인구 추정

정의	사회조사	측정
사회적 지지 체계 없음(A)	23번 항목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사회적 관계 없음(A)	23-1번 항목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중에서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임

- 사회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교류가 모두 없는 인구를 고립인구로 추정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대비 사회적 고립 인구는 '21년 6.0%로 '19년 4.7%보다 증가했음
- 만 19~34세 만 19~34세 사이의 고립 청년은 2019년 3.1%에서 2021년에는 5.0%로 증가하였으며 54만 명 정도로 추정(보사연)



출처: 김성아(2023)

<그림 2-6> 고립 인구 추정

나. 실태조사

- 사회적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전 국민 대상의 생애주기 관점의 고립·은둔 측정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승인 통계로 통계 결과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에 한계가 있음

<표 2-13> 고립·은둔 실태조사 개요

	부처 (지자체)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내용	비고
청년 삶 실태조사 (‘22년)	국무 조정실	방문 조사 (1만 5천여 명)	전국 19~34세 청년	소득, 취업, 결혼 등 삶의 전 분야 * 은둔 계기와 기간 포함	승인 통계 (매 2년)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23년)	보건 복지부	온라인 모집 조사 (8,874명)	전국 19~39세 청년	고립도,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양상, 자각인식, 회복의지 등	미승인 통계
고립·은둔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4년)	여성 가족부	온라인 조사	전국 9~24세 청소년	청소년의 고립·은둔 시작 (시기, 기간, 계기 등) 등	미승인 통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3년)	서울시	온라인 패널 조사 (6,926명)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청년가구)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및 생활실태 (청년) 고립·은둔 여부 및 생활실태	미승인 통계

<표 2-14> 고립·은둔 청년(19~34세) 출현율

		비중	추정 규모	정의
사회조사 (‘21년)	고립	5.0%	54만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가 부재하며(A. 사회적 관계없음), 생활·경제, 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도 부재한(B. 사회적 지지 체계 없음) 자로 정의함
	은둔	-	-	-
청년 삶 실태조사 (‘24년)	고립	-	-	-
	은둔	5.2%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임
청년사회 경제실태 조사 (‘21년)	고립			
	은둔	5.1%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3년)	고립	3.3%	9.5만	
	은둔	1.2%	3.3만	(1)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4)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 온라인 패널조사

1) 청년 삶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 (조사 항목) F.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 관련 문항

청년 삶 실태조사 관계 및 참여 분야				고립 관련개념																									
<p>F1 다음 귀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p> <p>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항목)이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어서 F1-1 과 F1-2 모두 응답해 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집단</th> <th>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th> <th>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th> </tr> </thead> <tbody> <tr> <td>1) 큰 돈이 필요할 때</td> <td>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td> <td>① ② ③ ④ ⑤</td> <td>① ② ③ ④ ⑤</td> </tr> <tr> <td>2) 어떤 일 생활비가 부족할 때</td> <td>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td> <td>① ② ③ ④ ⑤</td> <td>① ② ③ ④ ⑤</td> </tr> <tr> <td>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td> <td>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td> <td>① ② ③ ④ ⑤</td> <td>① ② ③ ④ ⑤</td> </tr> <tr> <td>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td> <td>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td> <td>① ② ③ ④ ⑤</td> <td>① ② ③ ④ ⑤</td> </tr> <tr> <td>5) 일상에서 부담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td> <td>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td> <td>① ② ③ ④ ⑤</td> <td>① ② ③ ④ ⑤</td> </tr> </tbody> </table>				구분	집단	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큰 돈이 필요할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일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일상에서 부담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p>사회적 지지 체계</p>	
구분	집단	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큰 돈이 필요할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일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일상에서 부담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p>F6 귀하는 평소엔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p> <table border="1"> <tbody> <tr> <td>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td> <td>①있다</td> <td>②없다</td> </tr> <tr> <td>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td> <td>①있다</td> <td>②없다</td> </tr> </tbody> </table>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p>사회적 관계</p>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 (주요 결과) 청년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응답 결과는 ‘없음’ 응답 비율이 ‘22년에 비해 ’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

<표 2-15> 도움 집단 응답 결과

구분	'22년					'24년				
	가족 (친척)	지인	공공 기관	민간 기관	없음	가족 (친척)	지인	공공 기관	민간 기관	없음
큰 돈 필요	92.8	33.5	10.7	2.0	3.3	82.6	17.5	7.5	1.5	9.9
생활비 부족	93.4	33.3	5.1	1.0	2.3	84.4	20.2	3.2	0.9	7.3
본인·가족이 아플 때	94.8	41.1	6.6	2.1	1.2	85.6	24.3	4.7	1.5	5.6
우울 또는 스트레스	76.5	66.0	6.1	4.0	2.2	62.2	55.3	3.7	2.3	8.1
차별·고충·갈등	77.4	53.3	23.5	5.0	3.4	60.9	46.0	16.1	3.8	8.5

출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보도자료

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은둔 관련 항목) 고위험 고립군 청년 집단, 즉 은둔형 외톨이 집단에 대한 추출 및 상세 조사를 위해 은둔 측정 관련 항목을 1차에서 추출용, 본조사는 상세 질문으로 구분하여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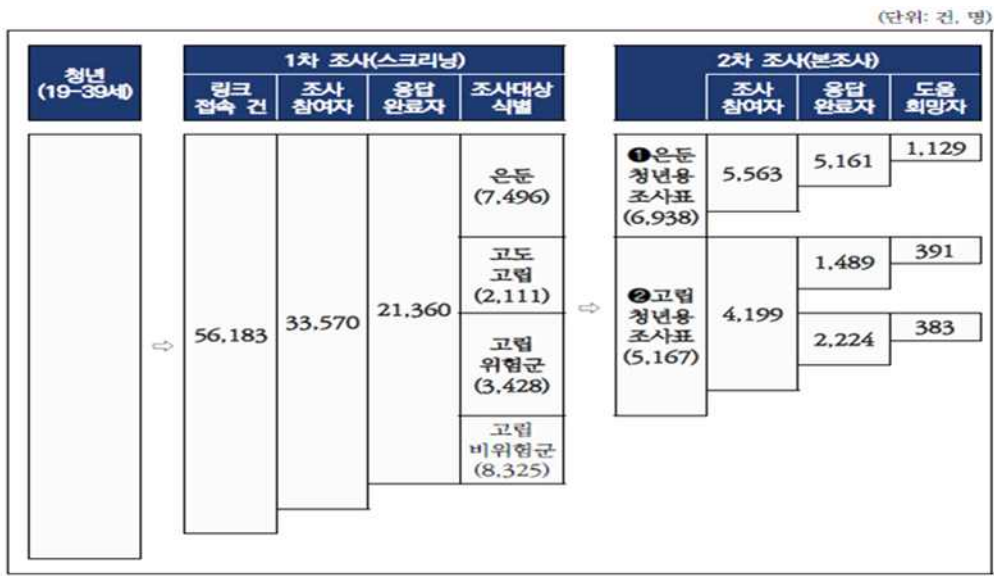
○ 1차 조사에서는 외출 빈도, 이유를 질문하나 기간 항목은 없음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은둔 관련개념
<p>SQ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p> <p style="text-align: center;">[prog: 은둔청년 if SQ3==①~④ & SQ3-1I==⑤,⑥]</p> <p>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SQ3-1로 이동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SQ3-1로 이동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SQ3-1로 이동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SQ3-1로 이동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SQ4-1로 이동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SQ4-1로 이동 ⑦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SQ4-1로 이동 ⑧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SQ4-1로 이동</p> <p>SQ3-1.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p> <p>① 학업 중단으로 ② 대학 진학 실패로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④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⑦ 기타()</p>	<p>(1차 조사) 외출 빈도 이유</p>

○ 본조사에서는 고립·은둔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세 이유, 기간 질문 문항으로 구성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본조사)	은둔 관련개념
<p>Q3. 귀하는 어떤 이유로 은둔하게 되었나요? [순위별 1개 선택]</p> <p style="text-align: center;">1순위 () 2순위 () 3순위 ()</p> <p>① 가족 어려움(관계 악화, 이혼, 사망 등) ② 학업 어려움(성적, 입시 등) ③ 직업 어려움(취업준비, 실직, 퇴직 등) ④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 ⑤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 동료 등) ⑥ 건강상의 어려움(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⑦ 게임, 주식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⑧ 특별한 이유는 없음 ⑨ 기타 (구체적으로:)</p> <p>Q4. 은둔 생활을 한지 총 얼마나 되었나요? [1개 선택]</p> <p>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3년 미만 ⑤ 3년~5년 미만 ⑥ 5년~10년 미만 ⑦ 10년 이상</p>	<p>(2차 조사) 외출 빈도 이유</p>

□ (응답 표본) 1차 조사 응답 완료자 21,360명의 은둔 상태와 사회적 고립 척도에 의한 점수를 활용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① 은둔 청년, ② 고립 점수가 높은 고도(高度, high) 고립 청년 및 ③ 고립 점수가 중간 수준인 고립 위험군을 포함하는 고립 청년 (②+③) 그리고 ④ 고립 점수가 낮은 비위험군으로서 조사 비대상 집단을 구분하여 8,874명의 본조사 유효 표본을 확보함(김성아, 2023)



주: 회색 영역이 조사대상 범위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7>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구조 및 응답자

3) 서울시 고립·은둔 실태조사

□ (고립의 정의 및 분류 기준) 고립은 은둔을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현상으로써, 국내외 고립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고립의 범위 및 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인이 지닌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의 수준을 통해 고립을 측정하고 있음. 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의 2가지 요소를 활용하였고,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였음

- 고립 청년은 다음의 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
 -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로,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함
 - (1) 정서적 고립: 아래 4가지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 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2) 물리적 고립: 아래의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 ①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 ②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교류(업무상 교류는 제외)
- 위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

- (은둔의 정의 및 분류 기준) 본조사에서는 고립과 은둔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립 내에 은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둔을 고립의 유형 중 하나로 전제하였음. 은둔의 정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의와 같이 물리적 단절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정의가 존재하며 본조사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수정·활용하였음
 - 은둔 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함
 - (1)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 (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 (4)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표 2-18>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비율	추산 인원
고립·은둔 전체	4.5%	126,829명 ~ 129,852명
고립	3.3%	93,820명 ~ 96,056명
은둔	1.2%	33,009명 ~ 33,7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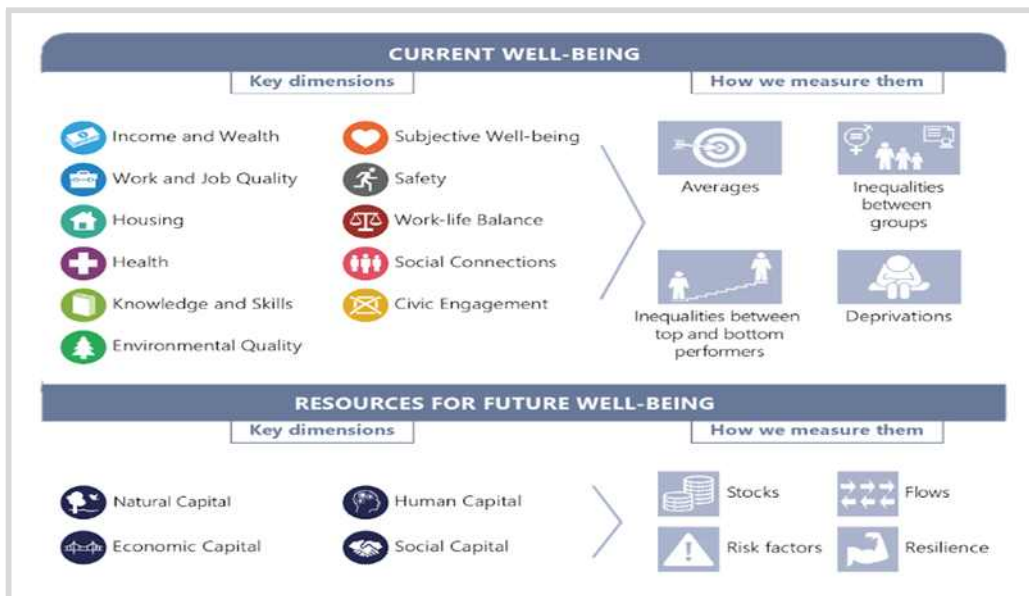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22)

2.3 사회적 고립과 은둔 측정의 해외 사례3)

- 본 장에서는 사회적 연결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개념과 측정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함
 - 사회적 연결성 개념 검토는 OECD의 웰빙 프레임워크의 사회적 연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고,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각 국가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함

가.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측정

- OECD 웰빙 프레임워크(well-being framework)의 ‘현재 웰빙(current well-being)’ 프레임에는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 차원이 포함되어 있음
 - 사회적 연결 차원은 OECD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영역으로 “사회적 연결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예: 개인이 가정 구성원, 가족, 친구, 동료 및 기타 지인들과 보내는 빈도와 시간), 상호작용의 질(예: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인지된 외로움)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예: 정서적 및 금전적 지원)”을 포괄함(OECD How’s Life, 2024)



*출처: 출처: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https://doi.org/10.1787/23089679>.

<그림 2-8> OECD 웰빙 프레임워크(The OECD Well-being Framework)

3) 본 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 원고를 토대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How’s Life(OECD, 2020) 보고서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time people spent interacting with friends and family)’, ‘어려운 시기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share of people who have no friends or relative to count on in times of trouble)’, 개인 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가 보고됨
 - 이에 더하여 OECD How’s Life 웰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외로움(loneliness)을 포함한 4개 지표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으며(OECD, 2024), 이 지표는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개인 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외로움(loneliness) 등임
 - 해당 지표들은 Gallup World Poll 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장점이 있음. 이 지표들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9> ‘OECD How’s Life’ 웰빙 데이터베이스 사회적 연결성 지표

지표명	정의	비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비율(%)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s)	주요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한 시간, 주당 시간	시간
개인 관계 만족도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	만족도(점)
외로움(loneliness)	지난 4주 동안 대부분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	비율(%)

*출처: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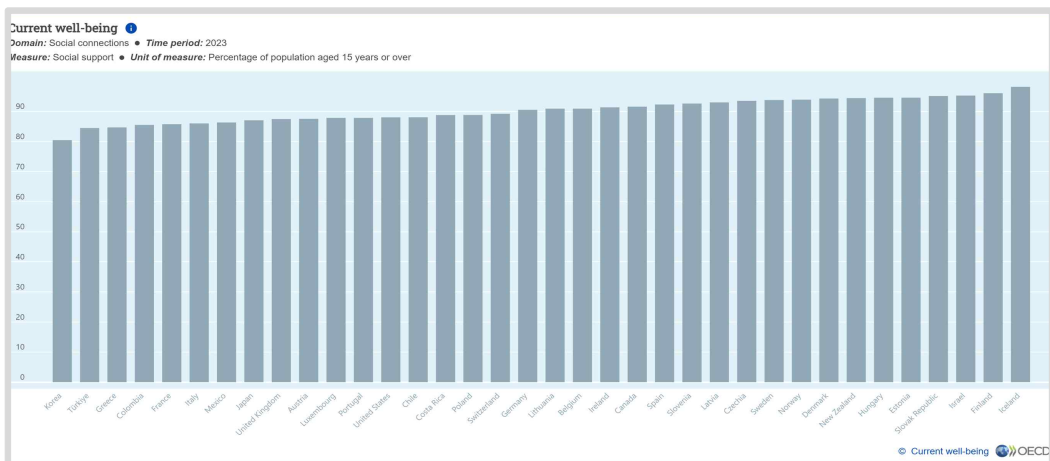
1)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 사회적 지지 지표는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됨
 - 사회적 지지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연결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되며, 사회적 지지의 결핍(lack of social support)은 사회적 고립의 대리 지표로 활용되기도 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지표의 측정 방식 및 출처
○ 지표 및 측정 단위: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퍼센트)
○ 지표 유형: 국가 평균, 결핍, 수평적 불평등(성별, 교육 수준, 연령별[청년=15~29세, 중년=30~49세, 노년=50세 이상] 데이터)
○ 정의: 사회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예/아니오)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 "만약 곤경에 처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 이 데이터의 출처는 Gallup World Poll로, 각 국가별로 매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됨. 표본은 사전에 15세 이상(농촌 지역 포함) 인구를 국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평적 불평등(인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통합 평균값을 사용함. 성별 데이터: 3년 단위 통합 평균(2008~2019, 총 4개 데이터: 2008~10, 2011~13, 2014~16, 2017~19) 및 2년 단위 통합 평균(2020~2023, 총 2개 데이터: 2020~21, 2022~23)
○ 연령 및 교육별 데이터: 7년 단위 평균(2010~2023, 총 2개 데이터: 2010~16, 2017~23)
○ 사회적 지원의 결핍은 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 출처: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 OECD Data Explorer에서 '사회적 지지' 지표 결과를 보면, 한국은 80.47%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98.18%임
- 사회적 지지 지표 비율을 역산한 사회적 지지의 결핍(lack of social support)에서는 아이슬란드가 1.82%, 한국은 19.53%임



*출처: OECD Data explorer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그림 2-9>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사회적 지지 결과

2)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요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한 시간, 주당 시간”으로 정의됨
 - 시간 사용 마이크로데이터를 계산하여 산출되는데 유럽 시간 사용 조사나 각국 통계청이 제공하는 추정치를 활용하여 계산됨. 다만, Gallup World Poll을 통해 산출되는 지표에 비해 데이터의 가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지표의 측정 방식 및 출처
○ 지표 및 측정 단위: 주요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한 시간, 주당 시간(시간/주)
○ 지표 유형: 국가 평균 및 수평적 불평등(성별 및 연령별[청년=15~29세, 중년=30~49세, 노년=50세 이상] 데이터)
○ 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된 시간은 주당 평균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시간)으로 정의됨. 일반적인 하루 동안 친구나 친척과의 상호작용(예: 가족과 대화하거나 친구와 외출하는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할당 한 시간을 포함하며, 이 일일 평균을 주간 추정치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국가 평균에는 조사 대상일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됨. 가족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주된 활동(main activity)으로 할애된 시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시간 추정치는 실제 사회적 활동에 사용된 총시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즉, 주된 활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예: 식사 중 대화, 무급 노동을 하면서 전화 통화 등)은 제외됨
○ 출처: 공개용 시간사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가능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Eurostat의 조화된 유럽 시간사용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s,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및 각국 통계청이 제공한 추정치를 활용

※ 자료출처: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 OECD Data Explorer에서 제공하는 ‘타인과 함께 하는 시간’ 지표 결과를 보면, 한국은 2014년 조사된 데이터로 주당 4.93시간(hours per week)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위치함

3) 개인 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 개인 관계 만족도는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로 측정됨
 - EU SILC로 알려진 ‘Eurostat의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조건 통계’와 각국 통계청이 제공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이는 해당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의 지표는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대신, 해당 조사에 빠져 있는 국가는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지표의 측정 방식 및 출처
○ 지표 및 측정 단위: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11점 척도,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 10점=매우 만족함)
○ 지표 유형: 국가 평균, 결핍, 수직 및 수평적 불평등(성별, 교육 수준, 연령별[청년=16~29세, 중년=30~49세, 노년=50세 이상] 데이터)
○ 정의: 개인적 관계 만족도는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만족함)까지의 11점 척도에서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설문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의미함. 이 변수는 응답자가 자신이 맺고 있는 개인적 관계(예: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전반에 대해, 특정 시점(최근)에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포괄적이고 성찰적으로 평가한 의견/감정을 반영함. 이 지표는 대부분 16세 이상(캐나다 15세 이상, 멕시코는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함. 이 지표에서의 결핍은 4점 이하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수직적 불평등은 개인적 관계 만족도 점수 상위 20%(즉,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5분위)의 점수를 하위 20%(즉,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5분위)의 점수로 나눈 비율로 측정됨
○ 출처: Eurostat의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조건 통계(EU-SILC,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및 각국 통계청이 제공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

※자료출처: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 OECD Data Explorer에서 제공하는 ‘개인 관계 만족도’ 지표 결과에는 한국 결과가 누락되어 있음.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가장 개인 관계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Türkiye)로 11점 만점 중 6.5점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Switzerland)로 8.61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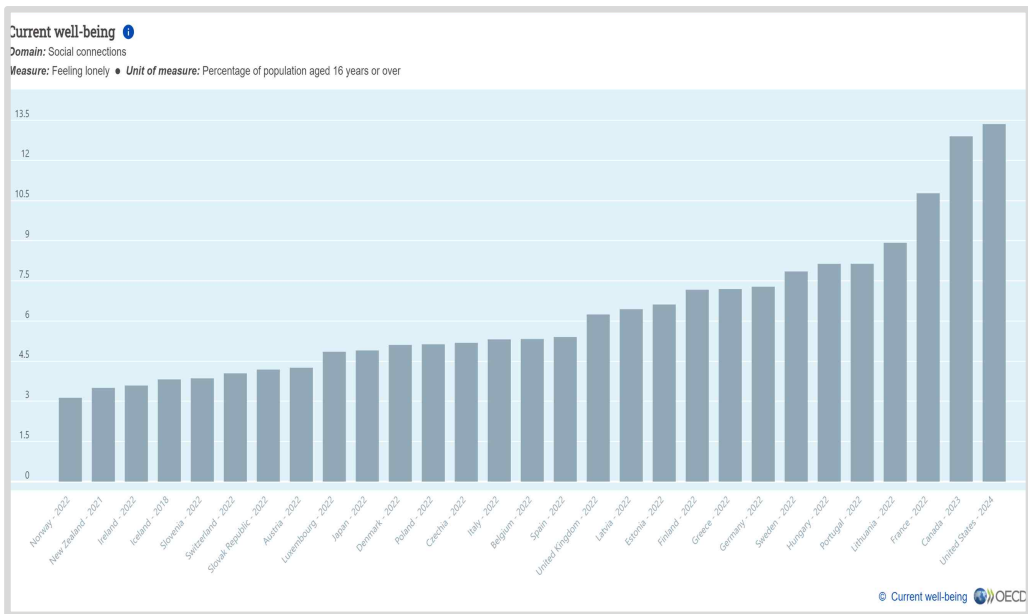
4) 외로움(loneliness)

- 외로움은 “지난 4주 동안 대부분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며, Eurostat의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조건 통계(EU-SILC)와 각국 통계청이 제공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됨

외로움(loneliness) 지표의 측정 방식 및 출처
○ 지표 및 측정 단위: 지난 4주 동안 대부분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퍼센트)
○ 지표 유형: 결핍 및 수평적 불평등(성별, 교육 수준, 연령별[청년=16-29세, 중년=30-49세, 노년=50세 이상] 데이터)
○ 정의: 외로움은 지난 4주 동안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가구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됨.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항상", "대부분의 시간", "가끔", "조금", "전혀 없음")
○ 출처: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조건 통계(EU-SILC) 및 각국 통계청 추정치

※자료출처: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 OECD Data Explorer에서 제공하는 ‘외로움’ 지표 결과에는 한국 결과가 누락되어 있음.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가장 외로움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13%, 뉴질랜드 3.5%였던 반면, 캐나다는 12.9%, 미국은 13.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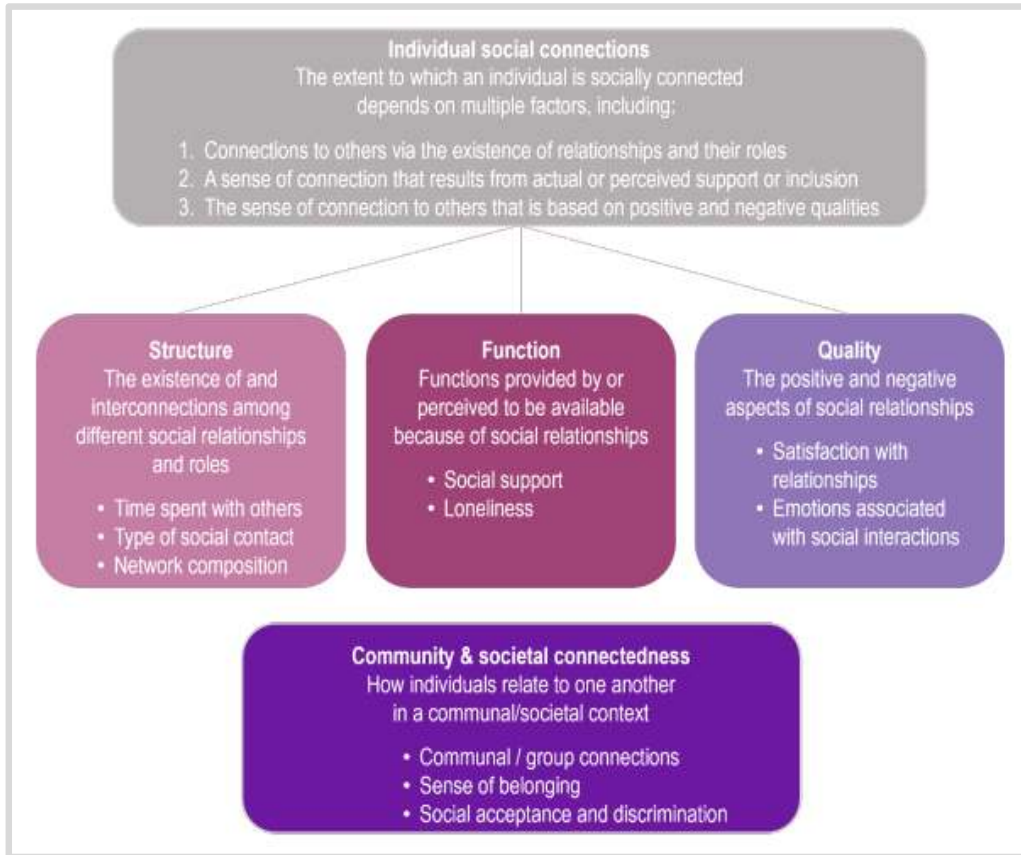
*출처: OECD Data explorer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그림 2-10>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외로움 결과

나. 새롭게 제안된 사회적 연결성의 측정 개념들

- OECD WISE 센터는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성 측정: 주제 범위 고찰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a scoping review)」에서 사회적 연결성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Mahoney, Fleischer, Bottura & Scrivens, 2024),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등을 포함하여 기존 사회적 연결성의 주요 지표들을 포괄하였음
 - 이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성 측정을 위한 틀(A schema for measuring social connections)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연결을 구조, 기능, 품질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의 연결을 포함하는 등 개념을 세분화하였음
 - 이는 Holt-Lunstad, Robles와 Sbarra(2017)가 제시한 도식을 기반으로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ing), 품질(quality)을 차용하고,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성을 새롭게 추가한 것임
 - 구조는 사회적 관계, 역할 및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기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실제적 또는 인식적 지원, 품질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포괄함
 -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성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들이 서로 그리고 더 큰 집단과 관계를 맺는지 등임(Mahoney et al., 2024)

- 이 측정 틀은 사회적 연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예: 개인이 가구 구성원, 가족, 친구, 동료 및 기타 지인들과 보내는 빈도와 시간), 품질(예: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인지된 외로움)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예: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을 포괄”함
 - 더 나아가 사회적 연결을 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의 기능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품질로 세분화하고,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성을 추가한 것이 특징임
 - 특히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은 기존 OECD의 측정 범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음(OECD, 2024; Mahoney et al., 2024).



*원출처: Adapted from Holt-Lunstad, Robles and Sbara (2017[65]), "Advancing social connection as a public health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https://doi.org/10.1037/AMP0000103>.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16 figure 2.2.

<그림 2-11> OECD의 사회적 연결성 측정 틀

1) 개인의 사회적 연결(individual social connections)

□ 개인의 사회적 연결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관계의 존재와 그 역할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 실제 또는 인지된 사회적 지원이나 소속감에서 비롯되는 연결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에 기반한 타인과의 연결감 등으로 구성됨

가) 구조

○ 구조의 측정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존재 및 이들 간의 상호 연결성(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사회적 접촉의 유형,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이루어짐. 예를 들어,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사회적 접촉(contact)의 유형, 네트워크의 다양성 등이 구체적인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음

<표 2-20> 구조: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사회적 접촉 유형, 네트워크 다양성

분류	예시 질문	응답 옵션 예시	조사명(국가)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여가 시간에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매일, 주 1회 이상, 주 1회, 월 몇 회, 연 몇 회, 전혀 없음, 친구 없음	다목적 가구조사 (이탈리아)
	하루 중 다음 활동 중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 동안 했습니까? (예: 가족/친구 방문, 동료와 대화 등)	해당 활동 선택, 시간 기입	시간사용조사 (콜롬비아)
사회적 접촉 유형	지난 한 달 동안 연락한 모든 친척을 생각할 때, 다음 중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직접 만남, 전화, 이메일/온라인 등)	매일, 주 몇 회, 월 2~3회, 월 1회, 지난달 없음	사회정체성조사 (캐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소통합니까? (커뮤니티, 포럼, 채팅 등)	매일, 매주, 월 몇 회, 연 1회 이상, 전혀 없음	유럽소득생활 조건통계(EU)
네트워크 다양성	본인과 성별/나이/종교/출신/학력/소득이 다른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사회조사 (이스라엘)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18. Table 2.1.

나) 기능

- 기능의 사회적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거나 제공받는다고 인식되는 것을 통해 측정됨. 즉 실제와 인식을 함께 측정하는 개념임. 이는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를 포함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기능은 외로움도 포함하는데 실제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외로움은 직접적으로 외로움에 대해 묻거나 외로움과 관련된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2-21> 기능: 사회적 지지, 외로움

분류	예시 질문	응답 옵션 예시	조사명(국가)
사회적 지지	심각한 개인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음, 1~2명, 3~5명, 6명 이상	건강조사-돌봄/ 사회적지원 (아일랜드)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매우 쉽다, 쉽다, 가끔 쉽다/어렵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사회조사 (뉴질랜드)

외로움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항상, 대부분, 가끔, 조금, 전혀 없음	유럽소득생활조건 통계(EU)
	UCLA 3문항 외로움 척도: 동반자가 부족함, 소외감, 고립감은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거의 없음/전혀 없음, 가끔, 자주	인간관계기본조사 (일본)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20. Table 2.2.

다) 품질

- 품질의 측정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감정)을 포착하는 것임. 관계 만족도는 그 자체로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감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인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측정

<표 2-22> 품질: 관계 만족도,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감정

분류	예시 질문	응답 옵션 예시	조사명(국가)
관계 만족도	전반적으로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불만족하십니까?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복지조사(칠레)
	(배우자 관련) 1. 가장 존경하는 점 3가지를 쉽게 말할 수 있다, 2.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3. 좋은 팀워크를 이룬다	예, 아니오	자기보고복지조사 (멕시코)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감정	어제[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느꼈습니까? (행복, 피로, 스트레스, 슬픔, 의미 등)	0~6점 척도	미국 시간사용조사-웰빙모듈(미국)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끼십니까?	항상, 대부분, 가끔, 드물게, 전혀 없음, 모름, 무응답	유럽소득생활조건 통계-국가조사 (룩셈부르크)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21. Table 2.3.

2)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

-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은 개인들이 공동체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으로 공동체와 집단과의 연결, 소속감, 사회적 수용과 차별 등이 있음. 공동체와의 연결, 소속감은 자신의 지역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 자신이 학교나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등으로 측정

<표 2-23>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성: 공동체 연결, 소속감, 사회적 수용 및 차별

분류	예시 질문	응답 옵션 예시	조사명(국가)
공동체 연결	내가 사는 지역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움을 느끼십니까?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비동의, 매우 비동의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
	지역 당국이 전기/수도 절약을 요청한다면, 이웃들이 협조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회조사 (이스라엘)
소속감	(캐나다) 본인이 속한다고 느끼는 집단: 지역사회, 도시, 주, 캐나다 등	선택지 중 해당 집단 선택	사회정체성조사 (캐나다)
	(PISA) “나는 학교에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나는 학교에서 어색하고 부적응하다고 느낀다” 등	매우 동의~매우 비동의 4~5점 척도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15세)
사회적 수용/차별	자녀가 다양한 배경(예: 출신, 종교, 인종 등)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매우 개방적~ 전혀 개방적이지 않음	사회통합조사 (한국)
	지난 5년간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인터넷/소셜미디어 포함)	해당 상황 선택	사회조사(캐나다)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24. Table 2.4.

3) OECD 사회적 연결성 측정과 사회적 고립 측정의 함의

- 사회적 연결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19를 전후로 사회적 연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념과 측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루어짐
 - 무엇보다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개념과 측정이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집 빈도도 부족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시계열 데이터 활용에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이에 OECD는 사회적 연결 영역 측정과 데이터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향후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임(Mahoney, Fleischer, Bottura & Scrivens, 2024).

- OECD의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 측정 프레임워크는 이론 기반의 지표체계를 구성한 것에 장점이 있으나, 아직 사회적 연결을 측정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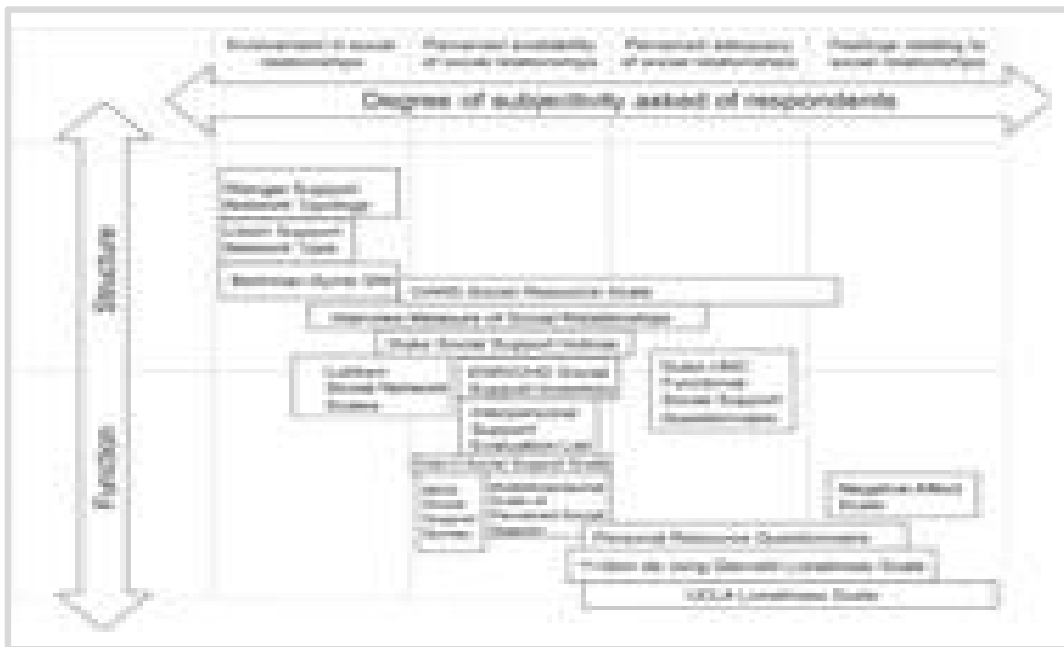
- 첫째, 실제 이 지표 체계를 뒷받침할 국제비교 가능한 시계열적 데이터가 거의 없어 데이터의 보완이 필요함
 - OECD Well-being Explorer에서 제공 중인 사회적 연결 지표들을 보면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이외의 지표들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국가와 시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와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 이외 관계 만족도와 외로움 영역의 데이터가 부재함을 볼 수 있음
 - OECD의 연구는 주제범위고찰(scoping review) 방식을 채택하여 OECD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결성 지표를 포괄하여 정리하였으나, 이 지표들은 일부 국가들에서만 한시적으로 측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연결성 측정을 위해 국제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측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 빈도 역시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다차원적인 사회적 연결 개념에서 고립과 단절 개념의 명료화가 필요함
 -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연결성이 떨어지는 상태 혹은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면 사회적 고립도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구조, 기능, 품질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하지만 다차원적인 측정은 사회적 고립의 기준선(threshold)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어느 영역이 부족할 때 사회적 고립으로 판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지는 못함.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나 누군가는 어느 한 지점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임
- 그럼에도 사회적 연결성의 다차원적 측정은 사회적 고립 측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줌
- 첫째, 사회적 고립에 있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임. 개인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 역시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임
 - 둘째, 사회적 고립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사회적 고립 내에서의 객관-주관 이분법으로 다루어야 할지, 객관적·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외로움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나 접촉 빈도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중요한 주관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임. 따라서 한 개인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고립된 상태(네트워크가 단절되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와 주관적으로 고립된 상태(고립감을 느끼고, 외롭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측정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측정 사례

1) 사회적 고립의 다차원적 개념과 측정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한 개인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은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이 부재한 객관적 상태일 수 있으나,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을 포함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은 다차원적인 개념이고, 다차원적인 측정을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Valtorta, Kanaan, Gilbody와 Hanratty(2016)는 구조, 기능, 주관성을 고려한 도식을 구성하여 기존의 다항목 척도들을 비교함
 - Zavaleta, Samuel과 Mills(2017)는 사회적 고립 측정을 위해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인 사회적 고립’(external social isolation)과 ‘내부적인 사회적 고립’(internal social isolation)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주관적 상태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음



*출처: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20),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Opportunities for the Health Care System. <https://doi.org/10.17226/25663>.

*원출처: Valtorta, Kanaan, Gilbody와 Hanratty(2016).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what are we measuring?

<그림 2-12> 사회적 고립 측정을 위한 다항목 척도에 대한 구조, 기능, 주관적 비교

- 사회적 고립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은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OECD WISE센터의 보고서에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드물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작은 것과 같은 객관적인 상태(objective conditions)”로 정의하였음
 - 대신 이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외로움을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외로움을 “개인이 바람직하지 않게 고립되어 있다고 인식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별도로 구분 (Mahoney et al., 2024, p.8).
 - 이는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감 혹은 외로움이 혼용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념을 분리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인 측면으로 한정하고, 외로움을 주관적인 측면으로 분리하는 것은 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중요한 작업임. 하지만 이미 사회적 고립 관련 연구는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아 이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Valtorta, Kanaan, Gilbody, & Hanratty, 2016; Zavaleta, Samuel & Mills, 2017).

가)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측정 사례

- 객관적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 낮은 사회적 접촉 빈도, 좁은 네트워크 범위 등을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의 지표로 활용 가능

A.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접촉 빈도 지표

- 유럽 사회조사(ESS)에서는 “귀하는 친구, 친척 또는 직장 동료와 사회적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How often socially meet with friends, relatives or colleagues?)”로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을 측정
 - 응답범주는 ‘never’, ‘less than once a month’, ‘once a month’, ‘several times a month’, ‘once a week’, ‘several times a week’, ‘everyday’ 등임(European Social Survey, 2020). 사회적 접촉이 낮은 경우(‘never’, ‘less than once a month’)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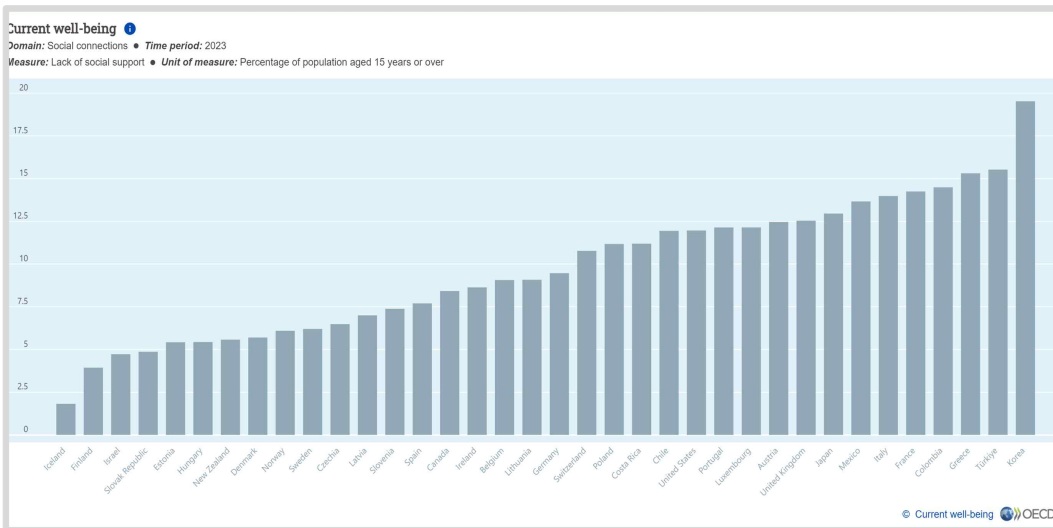
- 디지털화되어 가는 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는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접촉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유럽 사회조사(ESS)에서는 ‘가정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 ‘직장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을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접촉을 반영하고 있음
 - 일례로 ‘가정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은 전자 기술, 특히 컴퓨터화된 기술을 통해 전달되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포함하며, 온라인 화상회의와 같은 동시적인 상호작용, 이메일과 메신저와 같은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구분하고 있음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사회적 접촉 조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대면 접촉: 가정 영역에서의 대면 접촉은 가족 구성원과 직접 만나서 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함. 이 모듈에서는 연대감(지지와 감사)의 표현, 가족 활동의 조정, 모니터링 그리고 "상시 접속 가능성"에 관심이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춤. 생물학적 자녀이든, 위탁 자녀이든, 입양된 자녀이든 관계없이 부모와 자녀라는 가족 내 주요 관계를 고려함 ○ 가정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 가정 영역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은 전자 기술, 특히 컴퓨터화된 기술을 통해 전달되며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포함함. 의사소통이 장소에 유연한지, 동시적인 의사소통인지 그리고 동시적 의사소통일 경우 얼마나 풍부한지(시각 대 청각)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의사소통을 구분함. 동시적 디지털 의사소통(예: 화면을 통한 화상 채팅)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 장소에 유연한 (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 또는 장소에 유연하지 않은 (예: 유선 전화 통화) 오직 청각적 의사소통일 수도 있음. 비동시적 의사소통으로는 문자, 이메일 또는 메신징 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을 의미함 ○ 직장에서의 대면 접촉: 직장 영역에서의 대면 접촉은 직장에서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함. 이 모듈에서는 연대감(지지와 감사)의 표현, 업무 조정, 직무 성과 모니터링, 시간과 장소에서의 업무 자율성 그리고 "상시 접속 가능성"에 관심이 있으므로 상사 및 동료와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춤 ○ 직장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 직장 영역에서의 디지털 사회적 접촉은 전자 기술, 특히 컴퓨터화된 기술을 통해 전달되며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포함함. 의사소통이 장소에 유연한지, 동시적인 의사소통인지 그리고 동시적 의사소통일 경우 얼마나 풍부한지(시각 대 청각)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의사소통을 구분함. 동시적 디지털 의사소통(예: 화면을 통한 화상 채팅)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 장소에 유연한 (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 또는 장소에 유연하지 않은 (예: 유선 전화 통화) 오직 청각적 의사소통일 수도 있음. 비동시적 의사소통으로는 문자, 이메일 또는 메신징 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을 의미함

※ 자료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ESS Round10_Rotating module: Digital social contacts in work and family life_Module documentation - Pilot.
https://www.europeansocialsurvey.org/sites/default/files/2024-02/ESS10_Digital_Social_Contacts_Pilot.pdf 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B. 낮은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지지의 결핍

- 사회적 지지 문항은 Gallup World Poll 문항을 활용하고 있어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 대한 비교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이 문항은 대표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예’라고 응답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보고하고 있음



*출처: OECD Data explorer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그림 2-13>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사회적 지지의 결핍 결과

- 사회적 지지의 결핍 측정을 위한 개선도 필요함
 - OECD 회원국 비교를 하기에 용이한 환경이나 더 다차원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지 체계의 결핍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LSNS)이나 Berkman-Syme Social Network Index(SNI)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음
 - LSNS 척도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원척도와 축약 척도가 있다. LSNS-18은 18개 문항의 척도를 의미하고, LSNS-6는 6개 문항의 축약버전을 의미(Lubben, 1988; Lubben et al., 2006).
 - 이와 함께 Berkman-Syme Social Network Index(SNI)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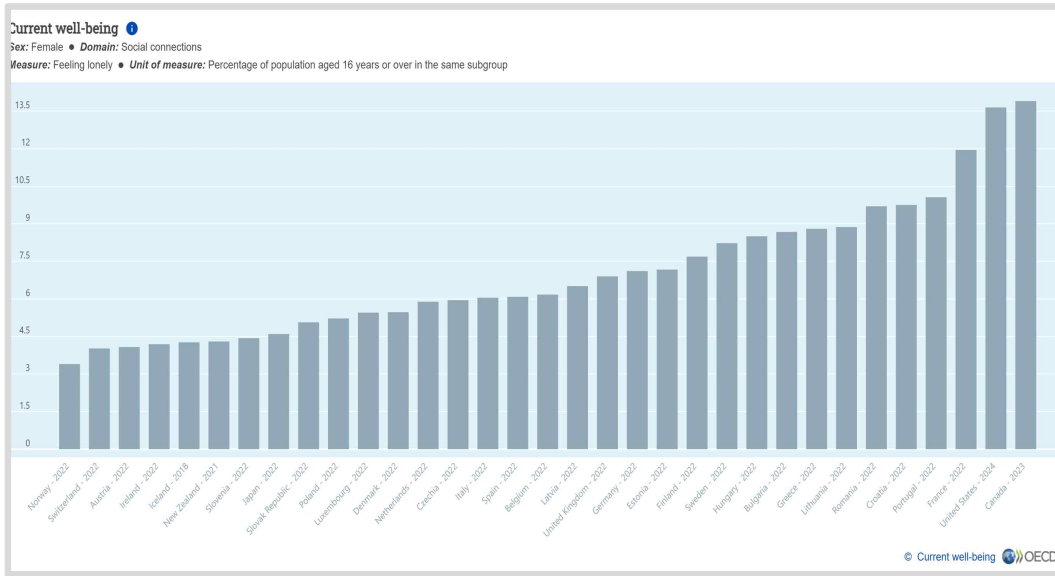
Lubben Social Network Scale-6(LSNS-6)의 예
<p>가족 Considering the people to whom you are related by birth, marriage, adoption, et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이나 친척은 몇 명입니까? •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은 몇 명입니까?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느끼는 가족이나 친척은 몇 명입니까? <p>친구 Considering all of your friends including those who live in your neighborhoo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느끼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p>*응답범주: 0 = none, 1 = one, 2 = two, 3 = three or four, 4 = five thru eight, 5 = nine or more</p>

*출처: https://www.brandeis.edu/roybal/docs/LSNS_website_PDF.pdf 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 사회적 네트워크 및 접촉 빈도와 네트워크의 범위와 지지 체계에 기반한 객관적 고립 측정은 구조적인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보여주기에 용이하고 기능적인 부분도 일부 반영할 수 있음
 - 이는 사회적 고립의 객관적 측면을 보여주는 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일반 사회조사에서 척도 문항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주제별 조사가 더 적합할 수도 있음
 - 한편, OECD의 측정 프레임워크 권고뿐만 아니라 측정 도구에 대한 권고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다면, 국내적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국제적 실태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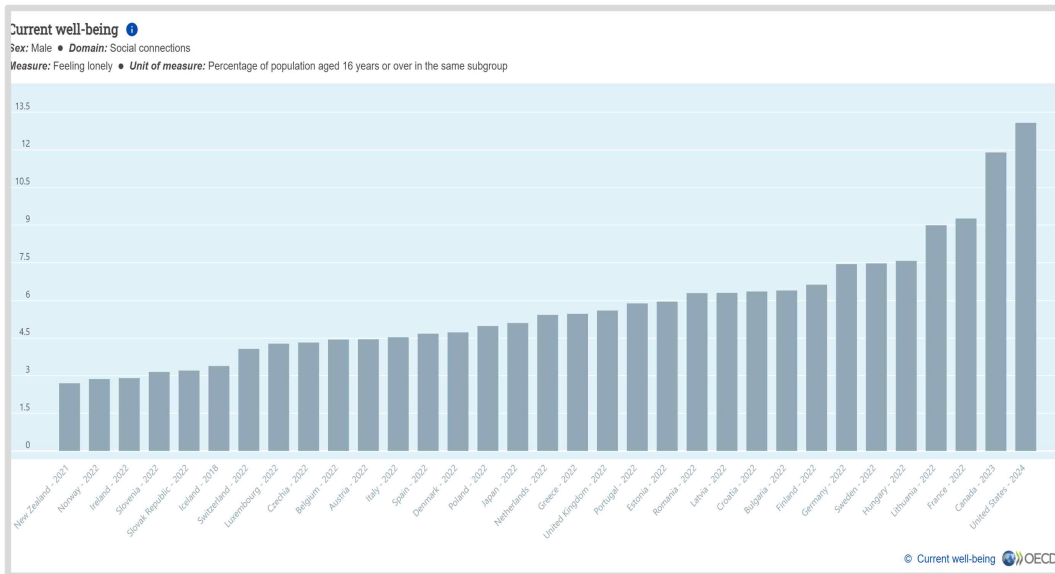
나)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측정_외로움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된 사회적 고립 혹은 주관적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loneliness)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측정의 영역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고립의 유형으로 보거나 독립된 외로움으로 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임. 외로움에 대한 측정은 표준화되고 널리 타당화된 척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거나, 독립된 문항으로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귀하는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십니까?"처럼 직접적으로 외로움에 대해 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OECD에서는 이 지표를 근거로 외로움에 대한 국제비교를 진행하고 있음



*출처: OECD Data explorer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그림 2-14>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외로움 결과(여성)



*출처: OECD Data explorer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그림 2-15>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결-외로움 결과(남성)

- OECD Data Explorer에서의 외로움 문항도 단일 문항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4주 동안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활용

- 이 결과는 각 국가별 변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여성의 경우 노르웨이가 3.4%, 스위스가 4.02%로 낮은 편이었고, 미국이 13.64%, 캐나다가 13.9%로 높은 편임. 남성의 경우 뉴질랜드가 2.7%, 노르웨이가 2.86%로 낮은 편이었고, 캐나다가 11.9%, 미국이 13.08%로 높은 편임

□ 외로움 측정을 위한 개선도 필요함

-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도 함께 조사되어야 할 필요
- 현재 외로움에 대한 측정은 UCLA 외로움 척도와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Russel, 1996; Gierveld & Tilburg, 2006).
- UCLA 외로움 척도는 20개 문항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제조사를 위한 3개 항목 조사(UCLA-LS-3)가 일부 활용
-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는 국제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

□ 유럽에서는 The Joint Research Centre(JRC)가 “Monitoring Loneliness in Europe”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22년에 the EU Loneliness Survey를 진행

- 이 조사에서는 UCLA 외로움 척도와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를 활용하여 유럽 국가들의 외로움 발생 빈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Schnepf, d'Hombres & Mauri, 2024)
- 코로나19 이후 외로움 측정은 확대되고 있음. 외로움을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영국의 경우 영국 통계청(ONS)에서 외로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영국도 “How often do you feel lonely?”와 같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문항이 탑재된 Opinions and Lifestyle Survey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PN)는 매달 진행되는 반복횡단조사(cross-sectional sample survey)로 영국(Great Britain)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⁴⁾ 이 결과는 ONS의 Well-being Dashboard에 공개되어 정책적으로 활용

4) 영국 통계청(ONS)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andlifeexpectancies/methodologies/opinionsandlifestylesurveyqmi> 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출처: 영국 ONS 홈페이지

<그림 2-16> 영국 통계청(ONS)에서의 외로움 측정과 활용

2) 은둔의 측정⁵⁾

- 한국에서 사용되는 은둔은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의 개념에서부터 온 것임
 - 히키코모리는 한국에 소개되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이 되었는데, ‘외톨이’라는 표현이 낙인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어 은둔으로만 표현하기도 함. 여기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측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일본에서는 전국 단위 조사 및 지역 단위 조사에서 일본인의 은둔 유병률을 1~2%로 추정
 - Koyama 등(201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일본 인구의 1.2%가 6개월 이상 은둔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
 -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서도 15세에서 39세까지의 국민 중 1.57%의 사람들이 은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일본 내각부는 실태조사에서 히키코모리를 6개월 이상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동네 편의점 등에 나가는 사람”,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만 집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Kato, Sartorius & Shinfuku, 2024).

5) 이 파트는 다음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음.

유민상(2025).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실태 및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일본 내각부의 문항 구조 (2015, 2018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39세 설문지: 문15.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합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 답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 · 40세-69세 설문지: 문15.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합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 답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이나 학교 때문에 평일에는 매일 외출한다 2. 일이나 학교 때문에 주 3-4일 외출한다 3. 여가(놀이) 등으로 자주 외출한다 4.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5.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 6.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에는 간다 7.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8.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출처

- 2015년 조사는 일본정부 통계 포털 사이트(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100107&tstat=000001094455&cycle=0&tclass1=000001094456&tclass2val=0> 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 2018년 조사는 일본정부 통계 포털 사이트(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index.html> 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시행

- 2015년 시행된 조사(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에서는 15~39세의 본인과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18년 시행된 조사(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에서는 40~64세의 성인과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등 연령대를 확대
- 이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히키코모리의 장기화 경향을 근거로 히키코모리 장기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음(유민상, 2025)
- 이 조사는 주제별 조사로서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5년 조사 개요에서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청년 중에서 특히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히키코모리’를 비롯한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청년에게 지역 지원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함과
- 전국의 시구정촌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만 39세의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아동·청년의 인원수나 그 계기, 필요로 하고 있는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제공함을 명시⁶⁾

6) 일본정부 통계포털 e-Stat 統計で見る日本の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 안내 페이지 <https://www.e-stat.go.jp/statistics/00100107> 에서 2025년 4월 22일 인출.

<표 2-25> 일본의 히키코모리 관련 실태조사 개요(2015, 2018년 조사)

조사명	2015년 아동·청년의 생활에 관한 조사 ⁷⁾	2018년 생활 상황에 관한 조사 ⁸⁾
조사 목적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아동·청년의 수와 그 계기,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여 ‘히키코모리’를 비롯한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에 대한 지역 지원 네트워크 형성 촉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추정값과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기간,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계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40세 이상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아동·젊은이가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히키코모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조사 대상	전국의 시구정촌에 거주하는 만 15세~39세, 본인 5,000명과 동거하는 성인 가족	전국의 시구정촌에 거주하는 만 40세~64세, 본인 5,000명과 동거하는 성인 가족
조사 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배부 및 회수	조사원에 의한 방문 배부 및 회수
조사 기간	2015년 12월	2018년 12월
히키코모리 그룹 정의	‘Q. 평소 얼마나 외출합니까?’에 대해 ‘취미 관련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고 답변한 사람을 ‘준히키코모리’로 정의하고, ‘근처 편의점 등에는 간다’,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을 ‘좁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로 정의하며, ‘준히키코모리’와 ‘좁은 의미의 히키코모리’의 합계를 ‘넓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로 정의	‘Q. 평소 얼마나 외출합니까?’에 대해 ‘취미 관련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고 답변한 사람을 ‘준히키코모리’로 정의하고, ‘근처 편의점 등에는 간다’,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을 ‘좁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로 정의하며, ‘준히키코모리’와 ‘좁은 의미의 히키코모리’의 합계를 ‘넓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로 정의

*출처: 鹿児島県くらし保健福祉部障害福祉課(가고시마현 생활보건복지부 장애복지과) (2023). 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히키코모리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유민상(2025)에서 재인용.

□ 일본 내각부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인원은 조사 인원 3,115명 중 49명이었으며 1.57%로 나타남
- 넓은 의미의 히키코모리 추정치는 54만 1천 명,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관련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는 36.5만 명(内閣府, 2016)⁹⁾

7) 자세한 내용은 일본정부 통계포털 사이트의 지표별 결과 참고(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 :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100107&tstat=000001094455&cycle=0&tclass1=00001094456&tclass2val=0>

8) 자세한 내용은 일본정부 통계포털 사이트의 지표별 결과 참고(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index.html>

9)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내각부 홈페이지를 참조: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h27/pdf-index.html>

<표 2-26> 일본 2015년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하십니까?)

Q20.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

	전체	일이나 학교로 평일에 매일 외출한다	일이나 학교로 주 3~4일 외출한다	여가 등으로 자주 외출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취미 관련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	근처 편의점 등에는 간다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무응답
총수	3115	79.2	7.7	3.8	4.6	2.7	1.6	0.3	0.0	0.1
[히키코모리 유형]										
광의의 히키코모리 집단	49	-	-	-	-	67.3	22.4	10.2	-	-
친화 집단	150	74.7	8.7	2.7	7.3	4.7	1.3	0.7	-	-
일반 집단	2905	80.8	7.7	3.9	4.5	1.5	1.3	0.1	0.0	0.1
[성별·연령별]										
15세~19세 (계)	575	92.7	2.8	2.1	1.0	1.0	-	0.2	0.2	-
남성	295	91.9	3.7	2.0	1.0	0.7	-	0.3	0.3	-
여성	280	93.6	1.8	2.1	1.1	1.4	-	-	-	-
20세~24세 (계)	541	76.7	11.3	4.1	3.9	2.4	0.9	0.6	-	0.2
남성	241	72.2	12.0	5.0	5.4	2.5	1.7	1.2	-	-
여성	300	80.3	10.7	3.3	2.7	2.3	0.3	-	-	0.3
25세~29세 (계)	548	74.1	8.9	3.5	6.8	3.1	3.1	0.4	-	0.2
남성	257	80.5	8.6	3.9	1.9	3.5	1.6	-	-	-
여성	291	68.4	9.3	3.1	11.0	2.7	4.5	0.7	-	0.3
30세~34세 (계)	677	75.3	7.5	5.6	5.9	3.4	1.6	0.4	-	0.1
남성	344	86.6	5.2	2.3	1.7	2.6	0.6	0.6	-	0.3
여성	333	63.7	9.9	9.0	10.2	4.2	2.7	0.3	-	-
35세~39세 (계)	774	77.9	8.1	3.5	4.9	3.2	2.2	-	-	0.1
남성	354	88.4	4.2	0.8	2.8	3.1	0.6	-	-	-
여성	420	69.0	11.4	5.7	6.7	3.3	3.6	-	-	0.2
[도시 규모]										
대도시	828	78.5	8.3	4.3	4.3	2.2	1.9	-	0.1	0.2
인구 20만 이상의 시	786	77.5	8.0	5.0	5.7	2.3	1.4	0.1	-	-
인구 10만 이상의 시	549	79.6	6.7	2.7	4.7	3.6	1.8	0.5	-	0.2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부(정촌)	952	81.0	7.5	2.9	3.7	2.9	1.4	0.5	-	0.1
[지역]										
홋카이도	118	72.0	12.7	3.4	5.1	4.2	-	-	0.8	1.7
도호쿠	220	79.1	6.8	3.6	5.5	3.2	1.8	-	-	-
간토	1047	80.0	8.2	4.1	4.0	2.3	1.1	0.3	-	-
주부(호쿠리쿠·도잔·도카이)	585	79.0	6.3	3.8	4.6	3.1	2.6	0.7	-	-
긴키	514	77.2	8.4	4.5	6.0	2.3	1.2	0.2	-	0.2
주고쿠·시코쿠	270	80.0	7.4	2.6	5.2	2.6	2.2	-	-	-
규슈	361	81.7	6.6	3.0	2.8	3.0	2.2	0.3	-	0.3

* 비교: 실제 비율은 은둔 기간(6개월 이상), 주요 이유(임신, 출산, 장애 등 제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 산출됨

* 출처: 일본정부 통계 포털 사이트

- 내각부에서 코로나19 이후 2022년 조사를 했을 때는 15~39세에서는 2.05%, 40~64세에서는 2.97%가 나타남
-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애전반기(아동, 청소년, 청년)와 생애중후반기(중장년, 노년)에는 생활 패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일본 내각부 “2022년 어린이·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보고서 (こ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 報告書)”의 문항 구조
<p>(15~39세 대상 조사 및 40세~69세 대상 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상시 얼마나 외출합니까?’에서 5~8을 선택한 사람 2.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나요?’라는 문항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 <p>이 중 다음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서 병명을 선택하고 정신분열증 또는 신체적 질병의 병명을 기입한 사람 B.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서 임신한 것, 간호를 담당하게 된 것을 선택한 사람, - ‘당신의 현재 일을 대답해 주세요’에서 전업주부, 주부, 가사를 선택한 사람 - ‘평소 자택에 있을 때는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에서 ‘가사를 한다’, ‘육아를 한다’, 또는 ‘간호를 한다’를 선택한 사람 - ‘최근 6개월 간에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했습니까?’에서 ‘잘 대화했다’ 또는 ‘가끔 대화했다’를 선택한 사람 - ‘현재 당신의 현재 일을 대답해 주세요’에서 회사 등의 임원, 자영업, 자유업, 가족 종사자를 선택한 사람 - ‘당신의 현재 일을 대답해 주세요’에서 선택지 2(파트타임, 아르바이트)부터 5(정규사원, 직원, 종업원)까지 중 하나를 선택한 사람 -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서 ‘그 외(이유:)’를 선택하고 이유에 집에서 일하는 취지로 대답한 사람 - ‘평소 자택에 있을 때,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에서 ‘일하기’를 선택한 사람 - ‘당신의 취업 경험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에서 ‘현재 취업 중이다’를 선택한 사람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index.html>, 유민상(2025)에서 재인용.

<표 2-27> 일본 내각부 “2022년 아동·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보고서(こ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 報告書)”에서의 히키코모리 표본 수 비중

구분	해당자 수	유효 회수 응답 중 차지하는 비율
15세~39세 대상 조사	144명	2.05%
40세~69세 대상 조사 (참고: 그중 40~64세)	155명 (86명)	2.97% (2.02%)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index.html>, 유민상(2025)에서 재인용.

<표 2-28> 일본 내각부 “2022년 어린이·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보고서(子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 報告書)”에서의 히키코모리 유형 및 비율

구분	연령별 구분	해당자 수	유효 회수 응답 중 차지하는 비율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일에는 외출한다	15세~39세 대상	67명	0.95%	준 히키 코모리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64명 (30명)	1.23% (0.70%)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에 나간다	15세~39세 대상	52명	0.74%	좁은 의미의 히키 코모리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81명 (50명)	1.55% (1.1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5세~39세 대상	21명	0.30%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4명 (3명)	0.08% (0.07%)	
자기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15세~39세 대상	4명	0.06%	광의의 히키 코모리
	40세~69세 대상 (참고: 그중 40~64세)	6명 (3명)	0.12% (0.07%)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index.html>, 유민상(2025)에서 재인용.

라. 사회적 고립과 은둔 측정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및 함의

- 지금까지 사회적 연결성과 사회적 고립의 측정 프레임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음. OECD(2024)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성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아직 많은 국가가 시계열적으로 안정되도록 측정되는 지표는 많지 않음
 - 따라서 사회적 연결성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은둔에 대한 측정은 OECD와 우리나라가 모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시사점 및 함의를 정리 하기 위해서 OECD 차원의 개선방안과 우리나라에서의 개선방안을 간략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1) OECD 차원의 개선방안

가) 표준화된 측정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OECD(2024)는 사회적 연결성 측정을 주제범위별로 분류(scoping review)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을 구조, 기능, 품질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추가하였으나, 아직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비교를 위한 지표 예시를 제시하지는 않음
 - 최근 사회적 연결성과 사회적 고립 관련 측정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일반 가구조사나 주제별 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측정 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의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나) 생애주기별,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측정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재 사회적 연결성 관련 지표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음. OECD WISE는 안정된 측정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타당화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조사에서의 개선 방안

가) 외로움 측정 개선

- OECD(2024)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들 중 외로움 관련 지표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이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이나 독립된 외로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 국제비교 가능한 외로움 관련 지표를 사회조사나 전국 대표성 있는 조사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제별 조사로 (가칭) 사회적 연결성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나) 사회적 고립과 은둔 측정 개선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고립·은둔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 개념은 훨씬 다양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론적 측정과 정책 대상으로서의 선별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측정 척도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정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 3 장

전문가 자문 및 유관 기관 업무 협의 결과

1. 전문가 자문 결과

1.1 개요

- 국내외적으로 고립·은둔의 개념과 측정에 단일한 기준이 아닌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에 관련 분야 전문가 세미나와 자문을 통해 사회조사 고립·은둔 문항 신설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고려 사항 등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학계 전문가 및 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책 전문 연구원 중심으로 전문가 세미나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다섯 차례 진행함

회의명(일시)	참여자	주요 내용
① 전문가 세미나 (24.12.18)	(전문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전문 연구원 등 3명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및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등 4명	‘사회적 고립·은둔 실태와 정책 대응 방안’ 발제 발표 및 토론
② 전문가 회의 (25.01.13)	(전문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 연구원 1명 (유관기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등 2명	고립·은둔 개념 및 정의, 질문 문항의 조사표 위치, 은둔 기간 포함 여부 등
③ 전문가 회의 (25.01.23)	(전문가) 국가데이터연구원 조사표 담당 사무관	고립·은둔 관련 조사표 수록 관련 의견
④ 전문가 회의 (25.02.07)	(전문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전문 연구원 등 4명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및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등	「2025년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관련
⑤ 전문가 회의 (25.02.20)	(전문가) 충남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전문 연구원 1명 (유관기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등	고립·은둔 문항 구성의 타당성 등

1.2 주요 결과

가. 전문가 세미나('24.12.18)

- (발제 발표) 사회적 연결성과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측정 관련 국내외 사례 및 고려 사항 주제로 발표
 - 사회적 연결과 사회적 고립, 은둔의 측정 개념들의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측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
 - 측정 기준과 원칙 마련: 지표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함. 지표 산출 결과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국제비교 가능성 등 검토 필요
 -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측정 간의 부합성이 검토되어야 함
 - 안정성: 측정한 결과가 시계열적인 안정성을 보이는지 검토되어야 함
 - 국제비교 가능성: 국가데이터처에서 산출한 결과가 OECD를 포함한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척도에 대해 한국형에 맞게 몇 가지 문항 추가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
 - 기존 척도의 활용 및 한국형 척도의 활용
 - UCLA loneliness scale과 DJGL은 원어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버전이 존재하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척도들도 존재함.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존 척도의 한국어 번안 척도 활용이 타당
 - LSNS-6의 경우 원칙도를 유지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몇 가지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원칙도의 축약 버전 활용 : UCLA loneliness scale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사례에서는 몇 가지 문항으로 축약하여 활용 중(예: 영국의 ONS에서는 4가지 문항으로 측정 중이며 아동 버전은 쉬운 용어를 사용)
 - 전 생애적인 발생률의 타당성 고려: 일본의 히키코모리 조사는 과거 청소년기와 청년기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중장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각함을 발견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음
 - 단, 우리의 경우 아동청소년기 외출, 청년기 외출, 중장년기 외출, 노년기 외출의 부재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특정 연령에 특화된 조사와 전 연령 조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
- (토론) 고립·은둔 측정 관련 문항 개발 의의 및 고령 사항에 대해 토론

- 사회적 고립·은둔 측정과 정책 연계는 도움을 원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담론임
- 세부 측정에서 고립·은둔 규모는 6% 정도이며, 기간은 측정 오류가 있어 규모 측정과 정책 연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
- 고립·은둔 측정과 정책적 활용에 있어 사회조사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프로세스라 여기짐
- 연령대별 측정 내용 변경 등 측정에 있어 다각도로 고민 필요

나. 전문가 자문회의(‘25.01.13)

- (개요) 고립·은둔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질문 문항의 조사표 위치, 은둔 기간 포함 여부, 문항 신설에 따른 사회조사 결과의 안정성 등 고려 사항 논의
- (연구 방향) 고립·은둔 관련 사회적 관계망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임
 - OECD(2024)*에서도 사회적 연계망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임
 - *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A Scoping Review
 - 금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측정 항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프로세스 속에서 2025년 사회조사의 고립·은둔 관련 항목 개발도 검토 필요
- (고립·은둔 개념) “고립”은 사회적 연결성이 부재한 상태로 정의되며, “은둔”은 일본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철회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은둔자(히키코로미)로 정의
 - 고립은 OECD와 국내외에서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은둔은 일본 외에 아직 사회적으로 정의가 정립되지 않음
 - 사회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립과 은둔이라는 용어보다는 “외로움”, “외출”로 문항을 설명하여 조사 필요
- (은둔 기간 포함 여부) 연구자의 입장에서 은둔 대상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 정의됨에 따라 6개월 여부 및 그 외 기간별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나, 은둔의 대상자가 적어 문항의 신뢰도 등의 어려움이 있음
 -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 은둔 관련 항목 추가 시 은둔 기간은 대상 여부(6개월 이상)를 판단하는 필터링의 목적으로만 활용 검토
- (사회조사 결과의 안정성) 기존 고립 및 은둔 대상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시계열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연도별로 증가나 감소의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움
- 매년 측정 시 고립 및 은둔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며, 시도의 사회조사와도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향후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와 시도의 지역사회조사 간 분석하고자하는 방향 설정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조사문항 검토) 기존에 조사된 문항은 청년을 중심으로 보기문항을 설정함에 따라 사회조사에서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모든 생애기간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변경하여 적용 검토

다. 전문가 자문회의(‘25.01.23)

- (개요) 고립·은둔 문항의 문구, 조사표 수록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해 국가데이터연구원 조사표 전문가 자문을 실시
- (외로움 항목) 척도, 문항 배치 등 검토



<그림 3-1> 외로움 항목 변경(안)

- (척도) “③보통이다” 문항의 적절성 문제, 4점 척도 및 5점 척도의 적절성
- 응답자가 “외롭다”라고 했을 시 “3.보통이다” 보기문항에 많은 응답을 할 여지가 있어, 4점 척도로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검토 필요

- 단, 연구자 입장에서 다른 문항과 연동하여 분석 시 5점 척도의 유지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기간) 평소에 대한 기간 설정(조사표 및 지침서 등) 필요
 - ‘평소’는 지침서상 얼마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검토 필요
 - 은둔과 연장선상에 있다면 6개월이 적정해 보임 ⇨ 기간 명시
 - * 특히, 자기 기입식 조사의 경우 문항 답변 시 고민스러울 수 있어 보임
- 조사항목 추가에 동의(다른 항목들과의 교차분석 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분야임)
- 외로움 항목의 세부 문항은 강도보다는 횟수 성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OECD 보고서의 국가별 사례에서도 횟수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됨)

37. **Loneliness** is typically measured either through a battery of multiple-item scales to obtain a latent measure, or as a single self-assessed question. The two most common multi-item tools used in both academic studies and household surveys ar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3-item scale (included in the Japanese Basic Survey on Human Connection and the English Community Life Survey – see Table 2.2 and Table A A.3), and the De Jong-Gierveld (DJG) 6-item scale (used in the Dutch Social Cohesion Survey, see Table A A.3). The former asks respondents how frequently they feel a series of states – lacking companionship, left out, and isolated from others – while the latter asks respondents the extent to which they agree with six statements – I often feel rejected, there are enough people I feel close to, etc. Both scales have a general reference period rather than a fixed recall period – i.e., the respondent is asked how often they *generally* feel these emotions, or the extent to which they *generally* agree with these statements (Russell, 1996^[88]; Gierveld and Van Tilburg, 2006^[89]). **By contrast, direct single-item questions usually ask a respondent to report how often they feel lonely over a given period of time (e.g., “How often did you feel lonely over the past four weeks?” Europea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Standards Survey) (Table 2.2).**

Table 2.2. Function: Social support, loneliness

Illustrative examples of questions and answer options from selected surveys, by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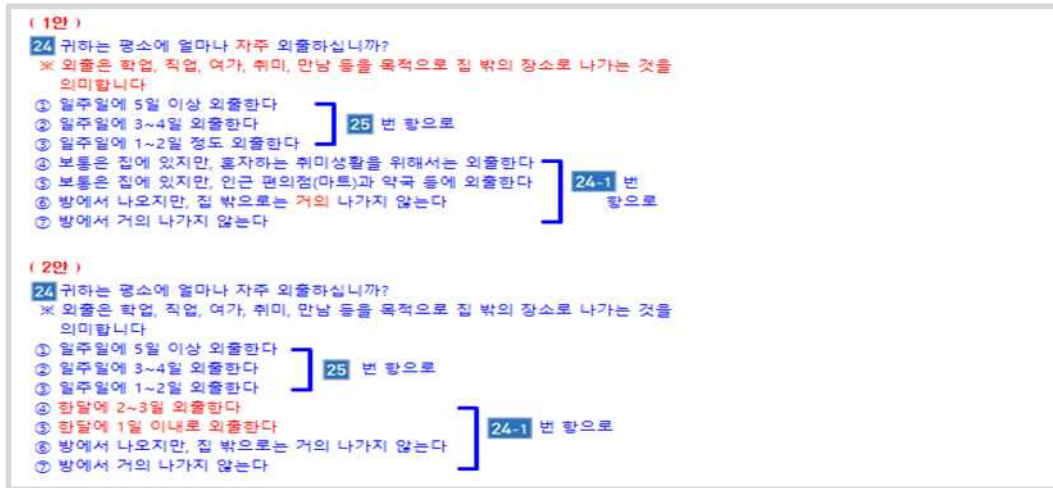
	Example question	Answer options	Survey name
Social support	How many people do you feel close enough to you that you could count on them if you had a serious personal problem?	None; 1 or 2; 3 to 5; 6 or more.	Irish Health Survey – Carers and Social Support (IRL)
	Suppose you felt down or a bit depressed and wanted to talk with someone about it. How easy or hard would it be to talk to someone?	Very easy; easy; sometimes easy/sometimes hard; hard; very hard.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 (NZL)
Loneliness	How often did you feel lonely over the past four weeks?	All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some of the time; a little of the time; none of the tim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rope)
	Three-item UCLA Loneliness scale: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 lack companionship? How often do you feel left out? How often do you feel isolated from others?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Basic Survey on Human Connection (JPN)

Note: Refer to Table A A.3 for a full list of example questions.

출처: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 A scoping review(OECD, 2024)

<그림 3-2> OECD WISE CSSP(2024) 외로움 정의 및 측정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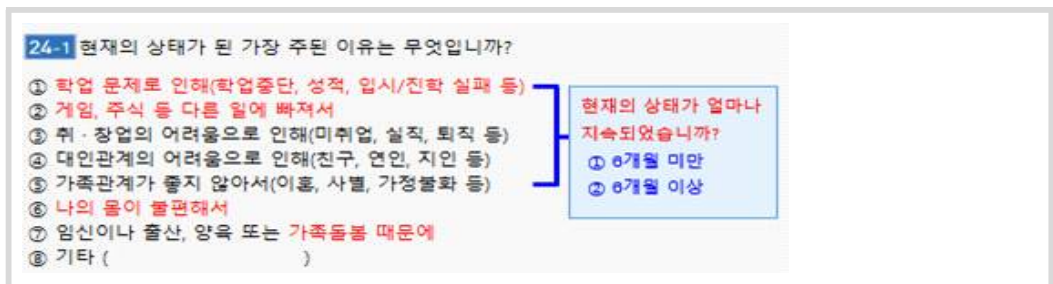
□ (외출 빈도) 외출 빈도 세부 문항, 외출의 정의 등 검토



<그림 3-3> 외출 빈도 항목(안)

- 1안보다는 2안이 기간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적절해 보임, 1안은 기간과 원인이 혼용되어 있음
- ⑥, ⑦항은 청년을 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 문구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
- ‘외출’의 정의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문항을 조사한다면 일부 문항, 기준 설정 필요
 - 여가, 취미는 유사한 성격을 지님
 - 혼자 사람들을 피해 밤에 산책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 시골에서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 이를 은둔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등 어떠한 계층을 은둔으로 포착할지 기준을 설정할 필요 ⇨ 지침서상 조사표 유의사항이나, 보기 문항의 명확한 설명 필요

□ (은둔 원인 및 기간) 세부 문항 배치, 기간 설정의 적정성 등 검토



<그림 3-4> 은둔 원인 및 기간 항목(안)

- (문항 배치) 보기문항 “① 학업 문제로 인해” 문항이 전 국민 대상 조사임을 감안할 때 처음보다는 하위 보기문항으로 배치 고려
- (문항 변경)
 - ‘③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항 ⇨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으로(미취업, 실직, 퇴직)’으로 변경하는 방안
 - ‘② 게임·주식 등 다른 일에 빠져서’ 문항은 부정적 느낌이 강하여 문구 변경 검토 필요 ⇨ 소위 게임 폐인과 게임종사자/전업투자자로 성격이 구분될 수 있어 게임·주식 활동의 성격을 구분하여 문항 설계할 필요
- (중복 응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둔이 시작된 경우 이는 대인관계, 가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유에 대한 원인이 흔해질 가능성이 있음. 중복 응답도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
- (기간) 현재 상태의 지속 기간을 ①~⑧까지 적용 필요
- (기타 문항의 유형화) 8항의 기타에 해당하는 주요 응답 예시 들을 (가능하다면) 전문가 회의 때 같이 제시한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존 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기타에서 나온 응답을 유형화

라. 전문가 자문회의(‘25.02.07)

□ (개요) 내외부 개선 의견을 반영한 「2025년 사회조사」 조사표(안) 마련하고, 신규 문항 및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항목	변경(안)
	개선 의견
	사회적 고립감을 ① 주관적 외로움, ② 자살 충동, ③ 타인의 본인에 대한 이해도로 파악(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살충동은 사회조사 객수년도 '건강' 부문의 '자살 충동' 항목으로 지표 파악
외로움	22 귀하는 평소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① 자주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취지) 사회적 고립감을 외부(사회적 관계망)와 내부적 고립(주관적 외로움)의 조합으로 추정하고자 '외로움' 문항을 신규 추가함. 이는 고립을 국제적 기준에만 맞춰 '외로움' 문항으로만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대 추정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문항의 위치는 앞 질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신뢰' 문항 앞에 배치하고자 함

항목	변경(안)
외출 빈도	<p>24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하십니까? ※ 외출은 학업, 직업, 여가, 취미, 만남 등을 목적으로 집 밖의 장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p> <p>① 일주일에 5일 이상 외출한다 ②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일주일에 1~2일 외출한다 ④ 한달에 2~3일 외출한다 ⑤ 한달에 1일 이내로 외출한다 ⑥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⑦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 25 번 항목으로 } 24-1 번 항목으로</p> <p>○ (문항 취지) 「청년 삶 실태조사」의 ‘외출’ 문항을 토대로 전체 연령에 적합하도록 선택항목 수정을 검토하였으나, 외출 빈도와 목적이 혼용되어 복잡성이 가중되므로 선택항목을 외출 빈도 기준으로 통일하였음</p>
외출하지 않는 이유	<p>24-1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학업 문제로 인해(학업중단, 성적, 입시/진학 실패 등) ② 취업, 주식 등 다른 일에 빠져서 ③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인해(미취업, 실직, 퇴직 등) ④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친구, 연인, 지인 등) ⑤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서(이혼, 사별, 가정불화 등) ⑥ 나의 몸이 불편해서 ⑦ 임신이나 출산, 양육 또는 가족돌봄 때문에 ⑧ 기타 ()</p> <p style="text-align: right;">}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p> <p>○ (문항 취지) 외출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된 주된 이유는 상대표준오차(RSE)가 높아 MD로만 제공될 것을 예상하고도 신규 조사하는 사유는 장애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외출하지 않는 사람을 ‘은둔’에서 배제하기 위함이 주목적임</p>

□ (외로움 항목)

- 사회적 고립을 분석함에 있어 ‘외로움’ 문항을 포함하면 자료 활용 입장에서 유용할 것이며, 국제비교가 가능해지는 데 의미가 있고, 더불어 신뢰성이 더욱 강화될 것임
- 응답결과 활용 측면에서 ‘보통이다’를 제외한 4점 척도가 주관적 응답의 추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임
- WHO에서도 사회적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같이 보고 있으며, 신뢰성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한다는 측면과 국제비교 가능성도 같이 고려한다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평소’라는 시점에 ‘빈도’(얼마나 자주)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응답자가 외로움의 대상기간(6개월, 4주, 평소)과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응답하기는 불가할 것이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평소’에 얼마나 외롭다고 생각하느냐는 문구가 더 좋게 판단됨

□ (외출)

- 예시한 문항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에 적용되었던 문항이며 정책적 쓰임새를 고려한다면 외출 빈도와 목적이 혼용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외출 횟수로 은둔의 행태를 파악하기 곤란할 것임
- 해당 선택문항을 활용하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노년층은 보통 집에 있으며 집 밖에 거의 안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것이 ‘은둔’으로 파악된다면 세대에 따른 결과값의 오염 발생이 우려됨
- 외출 빈도 기준에 다른 문항(사회적 관계망)을 교류와 연계하여 내검한다면 목적성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위기청년 복지 지원법안」이 최근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위기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할 고립·은둔의 규모와 차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외출하지 않는 이유)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은둔의 주된 이유를 ‘기타’로 응답한 비중은 높았지만 선택항목의 예시로 활용할 수 없는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이 많아 ‘기타’ 응답은 명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6개월 지속 여부를 ‘은둔’의 제외 기준으로 인용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측정되었을 경우 정확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외출하지 않는 상태의 6개월 지속 여부가 필요한 이유는 ‘은둔’ 측정의 대상이 외출하지 않은지 오래된 6개월 이상의 ‘심화된 자’인지를 파악하는 목적이기 때문임
- 제외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6개월 지속 여부는 존치시키기로 함

□ (외출 빈도 문제 인식) 본인의 문제의식을 묻는 방식은 왜곡되거나 편향될 수 있고, 심각하다는 인식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삭제 필요

마. 전문가 자문회의(‘25.02.21)

- (개요) 지역 연구원 전문가를 통한 고립·은둔 실태조사 및 2025년 사회조사의 고립·은둔 관련 문항 구성의 타당성·정합성 자문
- (고립·은둔 실태) 충청남도에서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해 다양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 결과 주관적 고립·은둔 인식과 객관적 인식 사이에 간극 존재
 - 고립·은둔 관련 문항 추가 시 정의, 문항 배치 등 조사 설계 및 정책적 활용 단계 등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사 항목)
 - (사회적 관계망) 기존 조사 문항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관점에서 질문하는 문항 위주로 설계
 - 수혜자 관점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관점에서 문항을 배치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 문항 설계 등 고려
 - (외로움 문항) 4점 척도(안)이 ‘보통’이 포함된 5점 척도(안)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
 - (외출 빈도) 현재의 문항(안)을 보면, ‘외출 빈도’ 문항 중 ‘일주일에 1~2일 외출 한다’는 은둔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은둔 관련 외출의 빈도를 협소하게 파악하는 측면이 강해 해당 문항을 은둔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검토
 - (은둔 사유) 외출하지 않은 사유에 ‘취업준비’ 및 ‘교우 문제’ 등 은둔 사유의 선택지 확대 필요
 - (취업준비) 청년의 경우 취업 시장의 어려움으로 자격증, 시험 등 취업 준비가 장기간으로 이어져 고립·은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교우 문제) 학생의 경우 교우 문제가 고립·은둔의 원인인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키워드를 부각시킬 방안 검토
 - (게임·주식) 게임, 주식의 경우는 여타 은둔 사유와 다른 자발적 은둔으로 볼 수 있어 문항 설계 및 결과 해석 시 주의 필요
 - (응답 환경) 고립·은둔 관련 문항은 불응의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결과 해석 등에 다양한 검토 필요
 - 대면조사, 온라인 조사, 가구원조사, 가구원 조사 등 모드 효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조사 설계 개선 필요

2. 유관 기관 업무 협의 결과

- 본 연구과제는 고립·은둔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요로부터 출발하였음. 고립·은둔 관련 개발 문항의 정책적 활용도와 시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음
 - 청년정책, 고독사 등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관련 정책적인 수요를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에 제출하였으며, 외로움 문항과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등 고립·은둔 관련한 문항을 제안하고, 문항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청년정책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 등 유관 기관과 별도로 두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함. 전문가 회의와 함께 진행한 회의 결과는 전문가 회의 결과에 수록
 - (1차) 고립·은둔 관련 정의, 문항, 정책적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
 - (2차) 고립·은둔 관련 국가데이터처 자체 문항(안) 및 복지부 문항(안)* 에 대해 논의
- * 국가데이터처-복지부 1차 실무회의(8.27.) 이후 복지부에서 관련 부서(지역복지과, 청년정책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항(안) 제안

<표 3-1> 유관 기관 업무 협의 결과

회의명(일시)	참여자	주요 내용
1차 업무 협의 '24. 8.27.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담당 2명(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 등 2명 (사회통계기획과) 사회조사팀 2명	고립·은둔 항목 개발 관련 전반
2차 업무 협의 '24. 12.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청년정책팀 담당 4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 (사회통계기획과) 사회조사팀 2명	고립·은둔 관련 국가데이터처 자체 문항(안) 및 복지부 문항(안)에 대해 논의

제 4 장

고립·은둔 관련 사회조사 항목 개발

1. 항목 개발의 기준과 원칙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립·은둔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사회조사 항목을 개발하는 것임. 이에 이론적 항목 개발의 타당성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의 수요, 항목 변경으로 인한 사회조사 응답자 응답률, 시계열 안정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항목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항목 개발의 타당성 확보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측정 항목 개발 간의 부합성이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고립·은둔의 실태 파악을 위한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측정 항목 간의 타당성이 중요할 것임
 - 둘째,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의 확보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항목을 통해 측정된 고립·은둔 결과는 국내 유사 통계 및 국제 비교를 통해 검증되고 활용되어야 그 목적에 부합할 것임. 따라서 항목은 검증된 측정 도구 및 문구를 통해 이루어져 함
 - 셋째, 항목 개발은 사회조사의 결과의 안정성 기반 위에 이루어져 함. 사회조사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승인 통계로 매년 5개 영역, 70여 개 지표를 조사함에 따라 항목 연계 및 응답자 부담 등 사회조사 시계열 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넷째, 고립·은둔 결과 관련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마이크로데이터 공표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사회조사를 통한 고립·은둔 측정 결과 자료는 정책 부서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의 활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최대한 이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나,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항목 신설이며 지나친 인구 특성별 세분화 등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석은 오히려 대국민 신뢰 저하와 정책 활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확보된 데이터 위주로 제공하되 추후 결과를 보면서 이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다섯째, 결과의 활용과 관련해 고립과 은둔 개념은 아직 이론적·정책적으로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고립과 은둔 관련 항목을 통한 조작적 정의 및 결과 공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본 연구의 항목 개발 단계에서, 고립의 개념을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외로움)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결과 공표 또한 두 개념과 연관된 항목을 결합하여 ‘고립’ 용어로 공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임. 다양한 항목 데이터의 확보와 안정성 조사 관리가 국가데이터처의 우선 목표일 것임

□ 관련하여 고립·은둔과 관련한 도구의 타당화와 관련된 고려 사항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척도의 활용 및 한국형 척도의 문제
 - UCLA loneliness scale과 DJGL은 원어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버전이 존재하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척도들도 존재함. 국제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척도의 한국어 번안 척도 활용이 타당할 것임
 - UCLA loneliness scale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사례에서는 몇 가지 문항으로 축약하여 활용 중(예: 영국의 ONS에서는 4가지 문항으로 측정 중이며 아동 버전은 쉬운 용어를 사용)
 - 또한 이미 관련 항목을 도입한 조사의 경우를 우선 고려하여 검토 필요
- 전 생애적인 발생률 타당성 고려
 - 기존 고려·은둔 관련 조사 및 항목은 청년층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조사 문구, 결과 활용 등에서 기존 조사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임
 - 우선 정책 타겟층을 고려하되 전국민 대상 사회조사임을 감안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전 연령대를 위한 항목 설계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외로움 문항, 은둔 관련(외출 빈도, 외출하지 않는 이유, 기간) 항목을 다루고자 함

2. 세부 항목 개발

2.1 사회적 고립 항목

가. 외로움 항목 개발

- (외로움 문항 취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고립감 개념인 외부(사회적 관계망)와 내부적 고립(주관적 외로움)의 조합으로 추정하고자 ‘외로움’ 문항을 신규 추가함
 - 이는 고립을 국제적 기준에만 맞춰 ‘외로움’ 문항으로만 추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과대 추정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여타 항목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심층 분석 가능
- (외로움 개념)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유민상, 2025)
- (외로움 측정 방식) 단일 문항 방식 및 여러 문항을 조합하여 측정하는 척도화 문항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일 문항 방식)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응답의 용이성 확보 가능, 결과의 편의성에 장점이 있음. 다만, 다양한 세부 정보 활용엔 제약
 - OECD WISE CSSP UCLA-3 대표적, OECD WISE CSSP(2024), 우리나라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에서 현재 활용 중

<표 4-1> OECD WISE CSSP UCLA-3 척도 예시

분류	예시 질문	응답 옵션	조사명(국가)
외로움	UCLA 3문항 외로움 척도: ① 동반자가 부족함 ② 소외감, ③ 고립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거의 없음/전혀 없음, 가끔, 자주	인간관계기본조사 (일본)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와 Scrivens(2024), p.20. Table 2.2.

<표 4-2> 사회통합실태조사 예시

27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롭다	①	②	③	④

37. **Loneliness** is typically measured either through a battery of multiple-item scales to obtain a latent measure, or as a single self-assessed question. The two most common multi-item tools used in both academic studies and household surveys ar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3-item scale (included in the Japanese Basic Survey on Human Connection and the English Community Life Survey – see Table 2.2 and Table A A.3), and the De Jong-Gierveld (DJG) 6-item scale (used in the Dutch Social Cohesion Survey, see Table A A.3). The former asks respondents how frequently they feel a series of states – lacking companionship, left out, and isolated from others – while the latter asks respondents the extent to which they agree with six statements – I often feel rejected, there are enough people I feel close to, etc. Both scales have a general reference period rather than a fixed recall period – i.e., the respondent is asked how often they *generally* feel these emotions, or the extent to which they *generally* agree with these statements (Russell, 1996^[88]; Gierveld and Van Tilburg, 2006^[89]). **By contrast, direct single-item questions usually ask a respondent to report how often they feel lonely over a given period of time (e.g.,**

"How often did you feel lonely over the past four weeks?" Europea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Standards Survey) (Table 2.2).

Table 2.2. Function: Social support, loneliness

Illustrative examples of questions and answer options from selected surveys, by category

	Example question	Answer options	Survey name
Social support	How many people do you feel close enough to you that you could count on them if you had a serious personal problem?	None; 1 or 2; 3 to 5; 6 or more.	Irish Health Survey – Carers and Social Support (IRL)
	Suppose you felt down or a bit depressed and wanted to talk with someone about it. How easy or hard would it be to talk to someone?	Very easy; easy; sometimes easy/sometimes hard; hard; very hard.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 (NZL)
Loneliness	How often did you feel lonely over the past four weeks?	All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some of the time; a little of the time; none of the tim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rope)
	Three-item UCLA Loneliness scale: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 lack companionship? How often do you feel left out? How often do you feel isolated from others?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Basic Survey on Human Connection (JPN)

Note: Refer to Table A A.3 for a full list of example questions.

출처: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 A scoping review(OECD, 2024)

<그림 4-1> OECD WISE CSSP(2024) 외로움 정의 및 측정 사례 설명

- (척도화 문항 방식) 간접적인 여러 질문을 통해 일정 점수 이하를 대상 집단으로 추출하는 방식임. 다양한 문항 구성으로 결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응답자 조사 편의성엔 제약이 있어 대규모 단일 조사보다는 주제별 조사에 더 적합
-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가 대표적, 국가 비교 연구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져 국가비교 문항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Social Cohesion Survey(NLD) 등 대표성 있는 국가 조사에서도 활용(Schnepf, d'Hombres & Mauri, 2024)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의 예
Social Cohesion Survey (NLD) 사례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들이 귀하의 최근 상태에 얼마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는 일반적인 공허감을 느낀다.
-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리움이 느껴진다.
- 가까운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
- 나는 자주 거절당한 기분이 든다.

* 각 문항에 대해 Yes, Somewhat, No로 응답

□ (척도 세분화) 단일 문항 방식으로 설계 시 4점 척도 및 5점 척도 구성에 대한 문제

○ 4점 척도 및 5점 척도 예시

22. 외로움: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4점 척도	① 자주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① 자주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추가 시, “외롭다”고 느낀 응답자 중 많은 경우 ‘보통이다’에 응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점 척도의 구성이 타당함. UCLA-3 척도 등에서도 ‘보통이다’ 문항이 없는 4점 척도를 사용

□ (문항 배치) 사회적 연계망 항목과 외로움 항목의 배치 문제

- 외로움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감정임. 사회적 교류나 지지 체계가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들
- 사회적 연계망 항목에 이어서 바로 외로움 항목을 추가 시 사회적 교류나 지지 체계가 없는 상황이면 그렇지 않음에도 외로움이 큰 상태로 응답을 유도할 수 있어 문항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외로움 항목을 사회적 연계망 항목 앞에 배치하여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킬 필요

□ (문항 신설) 외로움을 묻는 4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조사하며 사회적 관계망 문항 앞에 배치

22. 외로움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① 자주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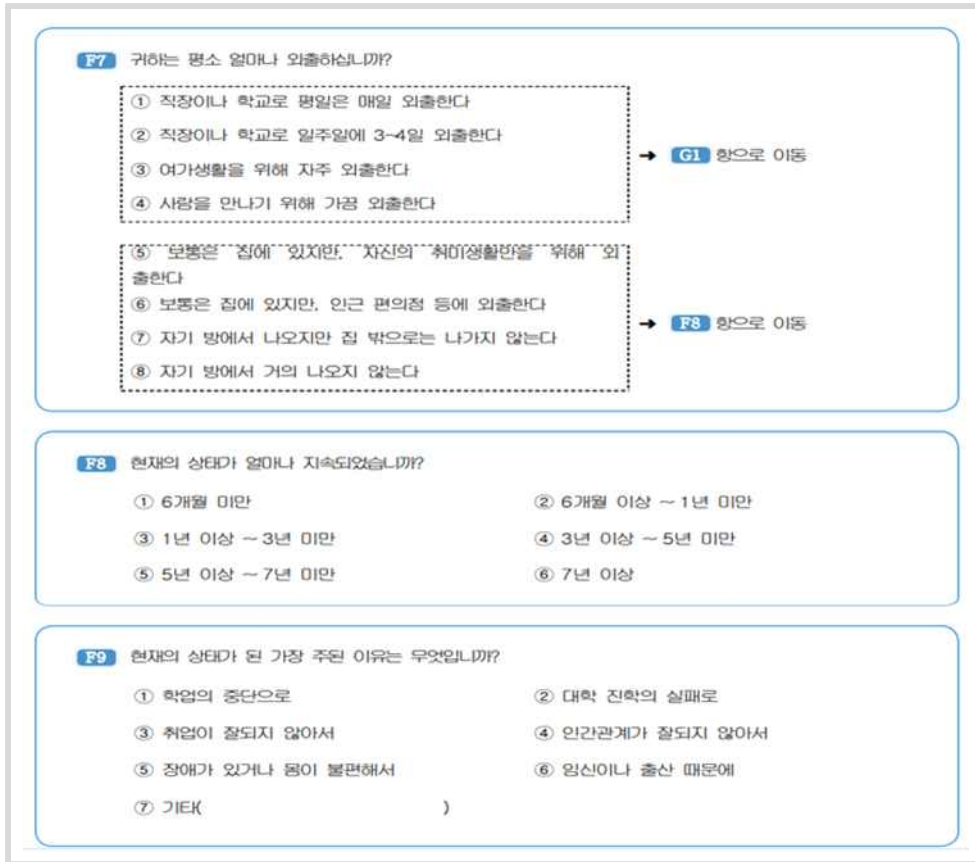
<그림 4-2> 2025년 사회조사표(안)

<표 4-2> 외로움 항목 결과표 예시

■ 질문문항번호: 22번 2. 외로움 (13세 이상 인구) ¹⁾ Loneliness (13 years old and over)		(단위: %)				
		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Total	Often	Sometimes	Rarely	Never
		A	B	C	D	E
		a=100.0	b=B/A*100	c=C/A*100	d=D/A*100	e=E/A*100
(전 국) Whole country 동·읍·면·부 Total for Dongs, Eups & Myeons 성 Gender 연 Age 교 Educational Attainment 혼 Marital Status 경 Employment Status 제 Status 활 Industry 동 Occupation 상 Status of Worker 태 Status of Worker 태 Status of Worker 가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구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소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득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연 Age*gender 령 Age*gender * Age*gender 성 Age*gender 별 Age*gender 교 Age*educational attainment 육 Age*educational attainment 정 Age*educational attainment 도 Age*educational attainment		※ 가구원 승수 적용				
(시 도) City and province 성 Gender 별 Gender						

2.2 은둔 항목

- (개념 틀) 은둔(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은 일본에서 발생하여 연구된 용어로 외출 빈도와 장소의 개념이 핵심.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취업이나 가사를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 정의함. 최근의 어린이·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구분 정의 또한 이와 유사함
- 외출 빈도와 장소 개념,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주요 키워드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와 조사에서 수용되고 있음
 - 특히 은둔 항목 연구의 본격적 도입을 시작한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문항은 이후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등 많은 조사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음
 - 해당 문항들은 외출 빈도와 지속 기간, 이유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4-3> 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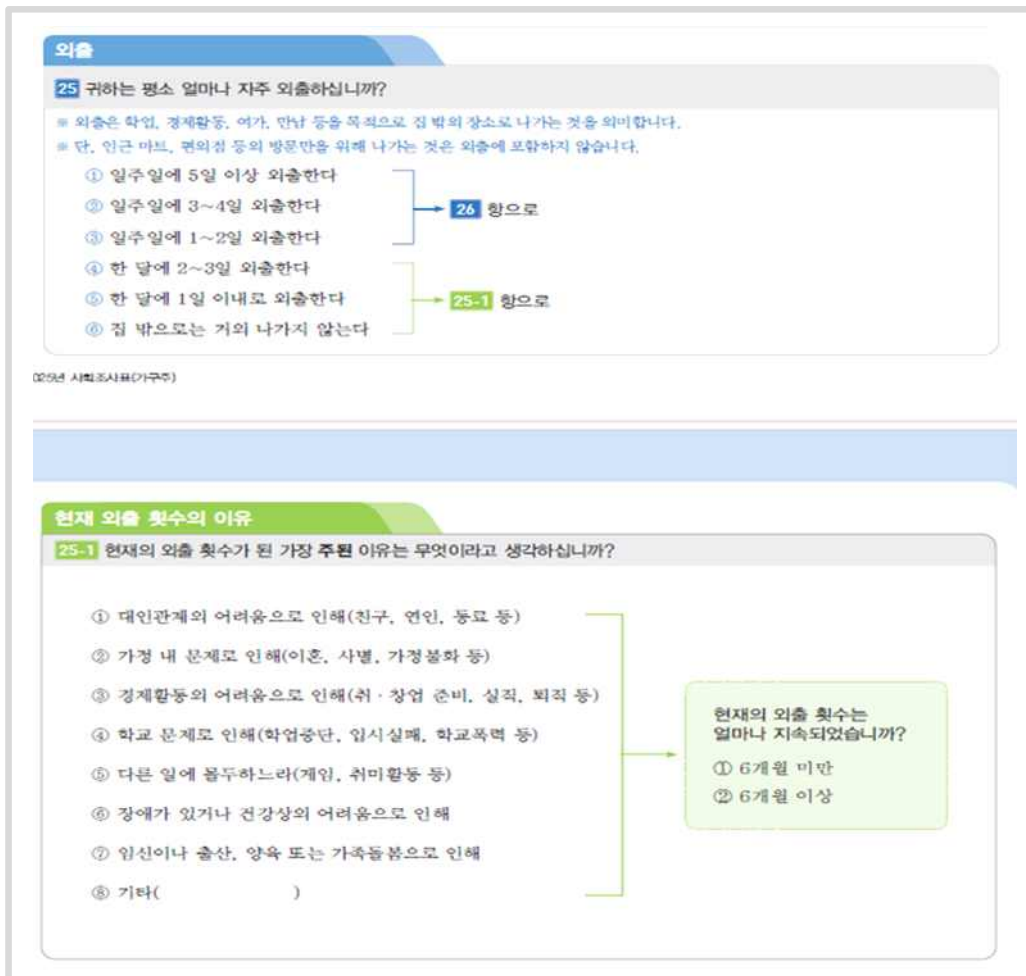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도 이 문항을 기반으로 하되 그 대상이 청년에서 전 국민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적합한 문구, 문항 배치 등을 수정하고자 함. 은둔 문항을 구성하는 외출 빈도, 은둔 기간, 은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항 취지)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서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정책 개입이 본격 시도됨에 따라 외출 빈도로 이들 잠재 계층을 포착하고, 은둔 사유의 파악을 통해 세부 계층 정책 개입 근거 마련, 다만 자기 기입식 조사에 따른 정확한 실태 파악의 한계와 외출 빈도와 사유 매칭 시 표본 수 협소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
- (외출 빈도 및 정의) 기존 조사 항목의 외출 빈도는 외출 횟수와 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며, 청년 위주 조사임에 따라 문항 구성 등이 전 세대를 아우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청년 삶 실태조사) 외출 빈도 문항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 외출한다 ⑦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외출 정의) 외출의 정의가 문항 취지에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 혼자 사람들을 피해 밤에 산책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 시골에서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 이를 은둔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등 어떠한 계층을 은둔으로 포착할지 기준을 설정할 필요 ⇨ 지침서상 조사표 유의사항이나, 보기 문항의 명확한 설명 필요
 - 외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은둔 인구는 정의상 학업, 경제활동, 여가, 만남 등을 목적으로는 집 밖에 나가지 않으므로 조사 설계 시 이에 대한 명시적 지침 수록 필요
 - 정의: 학업, 경제활동, 여가, 만남 등을 목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
 - (외출 빈도) 빈도 문항에서 횡수와 원인이 혼재되어 있어 문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전국민 조사에서 응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횡수로 기준을 통일하여 다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 또한 외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세부 항목 단순화에 따른 한계 극복 가능
 - (문항 구성) 또한 청년 위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하기에 부적절, 횡수로 기준을 통일한다면 해소가 될 것임
- (외출하지 않는 사유) 청년 대상으로 설계된 조사이므로 사유에 대한 문항 배치 수정 필요

(청년 삶 실태조사) 외출하지 않는 사유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 중단이나 대학 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③ 인간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현재 외출 횟수의 이유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친구, 연인, 동료 등) ② 가정 내 문제로 인해(이혼, 사별, 가정불화 등) ③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취·창업, 입시실패, 학교폭력 등) ④ 학교 문제로 인해(학업중단, 입시실패, 학교폭력 등) ⑤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게임, 취미활동 등) ⑥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⑦ 임신이나 출산, 양육 또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기간
현재의 외출 횟수는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그림 4-4> 2025년 사회조사표(안)

<표 4-3> 외출 빈도 결과표 예시

■ 질문문항번호: 25번
 5. 평소 외출 빈도 (13세 이상 인구)¹⁾
 Frequency of going out (13 years old and over)

(단위: %)

	계	일주일에 5 일 이상 외 출한다	일주일에 3~4일 외 출한다	일주일에 1~2일 외 출한다	한달에 2~3일 외 출한다	한달에 1일 이내로 외 출한다	(단위: %) 집 밖으로 는 거의 나 가지 않는 다
(전 국)	A	B	C	D	E	F	G
성·읍·면·부	a=100.0	b=B/A*100	c=C/A*100	d=D/A*100	e=E/A*100	f=F/A*100	g=G/A*100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중사상지위							
가구소득							
연령*성별							
연령*교육정도							
(시 도)							
성별							

※ 가구원 승수 적용

<표 4-3> 외출 횟수의 이유 및 기간

■ 질문문항번호: 25-1번
 5-1. 현재 외출 횟수의 이유 (13세 이상 인구)¹⁾
 Reason for current frequency of going out (13 years old and over)

(단위: %)

	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내 문제 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문제로 인해	다른 일에 몰 두하느라	장애가 있거 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이나 출산, 양육 또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	기타	현재의 외출 횟수 지속기간	
(전 국)	A	B	C	D	E	F	G	H	I	J	K
성·읍·면·부	a=100.0	b=B/A*100	c=C/A*100	d=D/A*100	e=E/A*100	f=F/A*100	g=G/A*100	h=H/A*100	i=I/A*100	j=J/A*100	k=K/A*100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중사상지위											
가구소득											
연령*성별											
연령*교육정도											
(시 도)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중사상지위											
가구소득											

※ A = 평소 외출 빈도(25항)가 '4' or '5' or '6'인 사람
 ※ 가구원 승수 적용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해당 연구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요로 출발하였음
 - 사회통합위원회는 고립·은둔의 사회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태조사 대부분이 청년 계층 또는 비확률표본조사로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 신설을 정책 수요로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에 외로움 문항과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등 고립·은둔 관련한 문항을 제안하고, 문항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가데이터연구원에 해당 과제의 수요를 제출함

- 해당 과제는 2025년 1월~4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고립·은둔 문항 개발을 위해 국내외 고립·은둔 개념, 측정 사례 등 문헌 고찰을 실시하고, 5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사회통계기획과,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음.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고립은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외부적 고립은 사회적 연결망으로 내부적 고립은 외로움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OECD(2024) 등도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로 개념화하고 사회적 연결망의 세부지표로 사회적 지지 체계, 사회적 교류 등 객관적 고립 지표뿐만 아니라 외로움 등 주관적 지표도 포함한다는 것을 파악함. 은둔은 국내외 일본 사례를 고찰한 결과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을 통해 파악이 타당하다는 것을 고찰함
 - 둘째, 현재 사회조사 항목에는 사회적 고립 관련 외로움 항목과 은둔 관련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항목이 부재해 이들 항목에 대한 개념, 측정 방식 검토를 통해 4개의 문항을 개발함. 외로움 항목은 UCLA-3점 척도 및 기존 사회통합실태조사 기반 4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조사하며 사회적 관계망 문항 앞에 배치하였함.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항목은 기존 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

되 전 국민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문항 문구, 세부 문항 배치를 수정함

- 셋째, 고립·은둔 관련 문항 신설을 통해 전 국민 대상의 고립·은둔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또한 존재함

- 첫째, 4개월의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국내외 연구 결과의 고찰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FGI, 시험조사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연구 결과의 품질을 보다 높였을 것으로 생각됨
- 둘째, 외로움과 외출 빈도, 외출 사유, 기간 등의 문항 신설이 정책적 수요로 결정이 되어 사회적 고립·은둔 관련 다양한 측면의 검토에 제한이 있었음.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 개념은 훨씬 다양할 수 있음. 따라서 이론적 측정과 정책 대상으로서의 선별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측정 척도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정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사회조사는 전 국민 대상 대규모 조사로 고립·은둔과 관련된 특수 계층을 위한 세부 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향후 심층 실태조사로써 해결해야 할 것임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 항목 개발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도 아울러 가짐

- 첫째, 사회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립·은둔과 관련된 항목을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의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되면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 사례 연구, 연령별 비교 등을 통한 생애주기별 시사점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이 가능토록 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둘째, 고립·은둔 관련 사회조사 항목의 개발로 OECD 등과 사회적 고립, 연결과 관련한 분야의 자료 공유 및 논의를 통해 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임. 이를 토대로 사회적 연결에 관해 OECD 등과의 글로벌 논의가 본격화되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른 보완으로 국내 관련 조사와 통계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사회조사 해당 항목은 '25.2월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실태조사의 결과와 상호 검증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여 구체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강신욱, 김안나.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복지기획단. (1995).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
 국무조정실. (2020).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길태영. (2021).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한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31(519), 5-36.
 김미루, 김은하. (2023).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및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30(9), 133-155.
 김민선. (202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9, 159-188.
 김선희. (20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동향”. **아동과 권리**, 27(3), 473-499.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와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2022a).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2022(3), 74-86.
 김성아. (2022b).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115-152.
 김성아. (2023). “고립 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2023(5), 6-20.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305), 74-86.
 김태현, 신영전, 홍진의. (2021). “행복과 건강 관련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텍스트마이닝 분석: 행복과 건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3, 7-39.
 김희정, 최한나, 김진희. (2023). “중년 남성의 행복에 관련된 변인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24(3), 61-85.
 노원정, 전송이. (2020). “사별한 배우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계적 문헌고찰”. **스트레스연구**, 28(4), 254-261.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1), 53-77.
 박상준, 원도연 (2022). “행복지표 속에 나타난 행복담론 변화연구”, **문화경제연구**, 25(3), pp. 35-60.
 박종민, 김서용 (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pp.141-164.
 박주은. (2016). “유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 유아행복의 개념, 관련변인, 측정도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 **아동교육**, 25(3), 76-94.
 보건복지부. (2014).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
 보건복지부. (2019).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 송섭규. (2022). “관광 분야 행복 연구에 대한 고찰 - SSCI 저널 등재논문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 **관광연구논총**, 34(2), 169-196.
- 신성일, 김영희. (2013).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4(6), 3673-3690.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심수진, 김은아. (2023).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
- 엄혜미, 강소라. (2023). “디지털 문화에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23(3), 181-192.
- 유민상, 김기현, 신동훈 (2023).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민주, 전하람. (2023). “평생교육 연구에서의 삶의 질 개념 활용에 관한 문헌 고찰”. **인문사회** 21, 14(1), 3287-3302.
- 이명희. (2019). “노인의 심리·정서관련 변인과 삶의 질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9), 338-347.
- 이안나, 강영신. (2023).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31(132), 181-205.
- 이유진 (2023). **유아교육기관 원장 리더십과 교사효능감에 관한 체계적 리뷰 및 메타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소
- 이지연, 정익중, 민지연. (2022). “아동·청소년기 주관적 행복감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53(4), 89-120.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학회**. 5(1), pp. 1-14.
- 장영식, 고경환, 손창균, 이수현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형상. (2016).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삶의 질 문헌탐색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135-149.
-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진, 김현숙. (2022). “청소년 행복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4(3), 1-35.
- 정해식, 권지성, 전성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2-01.
- 정혜숙. (2020). “기혼직장여성의 행복감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9(4),

503-517.

- 조병구, 박명호, 김석호, 이경희, 이명균, 이용수, 김옥, 박찬열, 김지역, 민인식. (2018). “국민 행복지표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3-01.
- 조정민. (2013).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 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2), 372-383.
- 최인찬, 이채윤, 류수경, 임혜정, 이선영, 유백산, 조병영. (2023). “리터러시와 주관적 웰빙의 상호관계에 관한 체계적 문헌 연구 -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8(1), 243-294.
- 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박주연.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통계개발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한준, 최슬기, 이도훈, 정인관, 권다운, 이시림, 김재현. (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통계개발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황성동(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학지사.
- 황환, 김영환. (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Agrawal, S., Sharma, N., Bruni, M. E., & Iazzolino, G. (2023). “Happiness economics: Discovering future research trends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416(1), 137860. <https://doi.org/10.1016/j.jclepro.2023.137860>
- Ayşe Eliüşük Bülbül. (2023). “Bibliometric Analysis of Studies on Well-Being”. *Journal for Educators, Teachers and Trainers*, 14(4), 223-233. <https://doi.org/10.47750/jett.2023.14.04.019>
- Berkman, L. F., & Syme, S. L. (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A nine-year follow-up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 186-204.
- Busra Yiğit, & Bünyamin Yasin Çakmak. (2024). “Discover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Bibliometric Review”.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5, 43-66. <https://doi.org/10.1007/s10902-024-00754-7>
- Cataldo, R., Alaimo, L. S., Grassia, M. G., & Maggino, F. (2024). How subjective well-being evolved over time: Insights from bibliometric and text mining analys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https://doi.org/10.1007/s11482-024-10332-x>
- Çikrikci, Ö. (2016). “The Effect of internet use on Well-being: Meta-analy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5, 560-566.
- De Jong Gierveld, J. and van Tilburg, T. (2006). “6-Item Scale for Overall,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Confirmatory Tests on Survey Data”. *Research on Ageing* 28(5), 582-598.
- European Social Survey (2020). ESS Round 10 Source Questionnaire. London: ESS ERIC Headquarters c/o City, University of London.
- Gao, F., Li, Y., & Bai, X. (2022). “Forg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6, Part B.
- Holt-Lunstad, J., Robles, T. F., & Sbarra, D. A. (2017). “Advancing social connection as a public health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sychologist*, 72(6), 517.
- Huang, D., Wang, J., Fang, H., Wang, X., Zhang, Y., & Cao, S. (2022). “Global research trends

- i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from 2002 to 2021”. A bibliometric analysis. *Frontiers in Psychology*, 13, 972515. <https://doi.org/10.3389/fpsyg.2022.972515>
- Kato, T. A., Sartorius, N., & Shinfuku, N. (2024). “Shifting the paradigm of social withdrawal: a new era of coexisting pathological and non-pathological hikikomori”.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7(3), 177-184.
- Khan, A., & Nasim, S. (2024). “Mapping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knowledge workers: A systematic enquiry deploying bibliometric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5, 87-106. <https://doi.org/10.1007/s10902-024-00764-5>
- Lubben, J. (1988). “Assessing social networks among elderly populations. Family & Community Health”. *The Journal of Health Promotion & Maintenance*, 11, 42-52.
- Lubben, J., Blozik, E., Gillmann, G., Iliffe, S., von Renteln Kruse, W., Beck, J. C., & Stuck, A. E. (2006). “Performance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mong three Europ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populations”. *Gerontologist*, 46(4), 503-513.
- Mahoney, J., Fleischer, L., Bottura, G., Scrivens, K.(2024).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A scoping review*.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No. 2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758bd20-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 OECD(2024). OECD How's Life? Well-being Database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s://www.oecd.org/wise/oecd-well-being-database-definitions.pdf> 에서 2025년 4월 21일 인출.
-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Shamseer, L., Tetzlaff, J. M., Akl, E. A., Brennan, S. E., Chou, R., Glanville, J., Grimshaw, J. M., Hróbjartsson, A., Lalu, M. M., Li, T., Loder, E. W., Mayo-Wilson, E., McDonald, S., McGuinness, L. A., Stewart, L. A., Thomas, J., Tricco, A. C., Welch, V. A., Whiting, P.,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BMJ*, 372, n71. <https://doi.org/10.1136/bmj.n71>
- Proulx, C. M., Helms, H. M., & Buehler, C. (2007).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576-593.
- Russell, D.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Russell, D., Peplau, L. A. and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 Schnepf, S. V., d'Hombres, B., & Mauri, C. (2024). *Loneliness in Europe: Determinants, Risks and Interventions*, p. 176, Springer Nature.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eo, A. R., Horie, K., Kurahara, K., & Kato, T. A. (2023). “The Hikikomori Diagnostic Evaluation (HiDE): a proposal for a structured assessment of pathological social withdrawal”. *World Psychiatry*, 22(3), 478-479.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 367-391.

内閣府(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Abstract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5 Social Survey Items to Identify the Reality of Isolation and Reclusion

Hansoo Woo, Sangmin Nam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such as the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the expansion of non-regular workers, population aging, and the proliferation of non-face-to-face environments, are aggravating the weaken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breakdown of social networks. These changes are not merely individual problems, but are also accepted as new societal issues of social isolation and reclusion. In particular, long-term reclusion and social isolation of the youth bring about considerable economic and social losses. While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UK have already measured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established response policies, South Korea doesn't produce life-cycle surveys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or official statistic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regularly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of social isolation and reclusion by adding questions on solitude to the 2025 Social Survey by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and to provide evidence-based data for policy making.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establish the concepts of isolation and reclusion and develop survey items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d survey practices, expert consulting,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al agencie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social isolation is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isolation, which can be measured by the breakdown of social networks and personal experience of

loneliness, respectively. It was proposed that external isolation is measured through survey item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frequency of socializing activities, while internal isolation is measured through the survey item of loneliness. Reclusion is defined based on behavioral, spatial, and temporal factors, and can be measured with new survey items, including frequency of going out, reasons for not going out, and duration of not going out. This composition was designed after referring to the Social Connectedness Indicator System of the OECD and the hikikomori survey system of the Japanese Cabinet Office to ensur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The survey item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newly added in the 2025 Social Survey, though which the scale, causes, and duration of isolation and reclusion will be systematically examine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atistical foundation will be widely utilized when developing variou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uch as youth policies,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s, and welfare policie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officially address social isolation and reclusion under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and these research results laid the foundation to advance the measurement of isolation and reclusion in the future and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recovery of social connectedness.

Key words: loneliness, isolation, reclusion, OECD

● 연구진

- 우한수(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통계사무관)
 - 남상민(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통계사무관)
-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5-01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한 2025년 사회조사 문항 개발 연구

인 쇄 2026년 1월
발 행 2026년 1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